



가천대학교

국내 최초 반도체 대학

배터리 특성화 대학원

하와이 캠퍼스

스타트업칼리지 '코코네스쿨'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가천대 길병원

국내 최초 연구중심병원

국내 최초 닥터헬기

국내 최초 중성자 암치료기

사립대 최초 국가지정 암센터

경인 최초 CAR-T 암치료센터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 소식지 차문화

2025 Vol. 159

가을

茶文化



가을날의 차꽃

차꽃을 보고 시심이 저절로 우러나오다

이정의 본관은 사천(泗川), 자는 강이(剛而), 호는 구암(龜巖)이다. 1536년(중종 31) 진사로 별시 문과에 장원, 성균관전직에 임명되었다. 어릴 때 송인수(宋麟壽)로부터 배우고 성장한 뒤에는 이황(李滉)과 교유하였다. 저서로는 『구암문집』, 『성리유편(性理遺編)』, 『경현록(景賢錄)』, 『논상례(論喪禮)』, 『한원보록(寒暄譜錄)』, 『열성어제(列聖御製)』 등이 있다.



구암 이정(1512-1571)

글로 사물을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는 직업이 시인이다. 그에 더해 시인은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생생하게 자신의 마음과 합체한다. 그것이 진정한 시인의 시작(詩作)일 것이다. 천재 시인이라고 불렸던 구암 이정은 조선시대 가장 많은 유학서적을 편찬하였고, 학문연구기관인 서원을 3곳이나 세웠다. 그가 세운 서원은 경주서악서원, 순천옥천서원, 사천의 구계서원이다.

오늘날 사천의 구계서원에서는 구암 이정을 기리기 위한 구암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구암제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한 행사로 많은 시민이 참여한다. 구암의 시 중에서 '차꽃'을 소재로 지은 시가 추일다화(秋日茶花)이다. 추일다화는 다음과 같다.

푸른 가지 초록 잎에 옥 같은 꽃 붙었으니 / 옹기종기 열린 모양 별처럼 반짝이네.

옥천(당나라 시인 노동의 호)의 몇 사발 차 무어 부러우랴? / 차꽃 주위 맴도니 심신이 절로 맑아지네.

다시(茶詩)로는 드물게 차꽃을 읊은 시이다. 차꽃은 하얀 꽃잎에 노란 수술이 달린다. 차꽃은 11월에 핀다. 차꽃만 보아도 노동의 좋은 차가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심신이 맑아짐을 느낀다고 시인은 적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를 보면서 차꽃이 저절로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다. 이만큼 생생하게 차꽃을 표현한 시는 없다. 차꽃의 영롱함을 그대로 그려낸 이 시는 구암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다. 차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꽃과 열매가 1년 만에 만난다. 그래서 차나무를 '실화상봉수(實花相逢樹)'라고 한다. ☯

[표지 이야기]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들녘은 황금물결이 일렁이고, 과수원에는 과일이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계절, 차문화를 이끌어 가는 회원들이 더욱더 반갑고 고맙습니다. 차나무는 꽃과 열매가 마주 보고 있다고 하여 실화상봉수라고 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사)규방다례보존회 소식지

발행·편집인 최소연 | 편집장 고만송

발행처 (사)한국차문화협회 | (사)규방다례보존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T. 02) 719-7816, 7817 | F. 02) 719-78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10호

T. 032)468-3595 | F. 032)461-2350

홈페이지 www.koreatea.or.kr | http://gyubangdarye.co.kr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 gyubangdarye@naver.com

茶文化

2025 Vol. 159 가을



茶半香初 • 내 안의 향기를 찾아

- 004 이사장 인사말 | 차인으로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 006 특집 1 | 경수연 진헌다례
- 022 특집 2 | 제65회 하계연수회
- 032 기획특집 | 차음식경연대회 영광의 수상자들
- 037 인물포커스 | 신임교육위원 대구경북제1지부장 박경숙

茶香共感 • 차의 맛, 차의 멋

- 038 현장 리포터 | 2025년 성주군 시군역량강화사업 '다도교실' 진행
- 040 지부장 칼럼 | 고려 팔관회를 통해 본 의례문화(1)
- 044 선조의 품격 | 고려 차시(茶詩) 이야기
- 048 건강한 삶 | 불면증
- 050 회원 글발 | 차(茶), 차(茶), 차(茶)
- 062 규방다례 소식 | 서남경 지부장, 변명선 이사 규방다례 이수자 합격
- 066 협회 소식 | 최소연 이사장 한복세계화재단 조찬회 참석 외

茶情茶感 • 찾임이 맺어준 인연

- 073 지부사랑방
강원지부 / 경남지부 / 광주지부 / 교토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충북지부
- 095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
- 097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액 내역 및 우수료 명단

차인으로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국내외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은 이상기온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이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더 절제하고 미리미리 환경보호에 앞장섰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유불급(過猶不及)과 소탐대실(小貪大失)을 경계했습니다. 순간의 과욕으로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우리가 생활화하고 있는 차문화 보급은 우리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아름다운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청소년들한테 차문화 예절지도, 전국차인큰잔치 및 차의날 개최, 차음식경연대회 등 다양한 차문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은 차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차문화 운동을 한가한 주부들의 신선놀이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 역경을 견디고 오늘의 차문화를 일궈냈습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얼마 전에는 우리 협회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하계연수회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날 하계연수회에 「경수연 진헌다례」가 3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조선시대 웃어른을 모시고

장수를 기원하는 「경수연 진헌다례」를 우리 협회가 발굴·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수연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어른신들의 삶과 지혜에 감사하는 자리이자, 젊은 세대가 전통 가치를 이해하고 계승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새롭게 조명하고 재현하는 것 또한 차인들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되어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개발 보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 하계연수회 때 펼쳐진 「경수연 진헌다례」를 더욱더 발전시켜 웃어른께 공경과 경의를 표현 하는 자리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개인의 힘은 아주 미미합니다.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차인 여러분들

이 제 힘의 원천입니다. 협회에 새롭게 등록하는 회원과 교육생을 볼 때마다 힘이 솟는 것을 느낍니다. 제 힘의 원천이 차인 여러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계연수회 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을 하면서 교육생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 무척 아쉬웠습니다. 차인 여러분들께서도 미래의 차인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예로부터 한가위는 햇곡식으로 빚은 예쁜 송편을 나누며 풍요로움과 정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옛말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차문화 발전이라는 소명을 향해 더욱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가을

이사장 **최소연**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최소연 이사장님과 차영민, 김가영 부회장님을 모시고 경수연 진헌다례 개최

규방다례 이수자, 임원, 회원,
내외 귀빈 300여 명 참석 큰 성황

협회는 지난 2025년 8월 23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경수연 진헌다례를 개최했다. 국내외 27개 지부 300여 명의 회원과 인천시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및 이사로 회원, 외부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경수연 진헌다례는 (사)한국차문화협회 규방다례의 다법을 바탕으로 여러 기록과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여 시연되었다. 빈주에 협회 최소연 이사장님, 빈객에 차영민, 김가영 부회장님을 모시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경수연이 펼쳐졌다.



협회 발전을 위해
동고동락해 오신
세 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협회 임원, 이수자,
지부장, 회원 등이
경수연 진헌다례를
열다



집례 : 박광옥 부회장, 김구환 전문사범



빈주이자 집례 주관자인 최소연 이사장님께서서는 2015년부터 협회 이사장직을 맡아 오시며, 숯한 어려움 속에서도 책임감과 헌신으로 협회 발전과 한국 차문화 향유 전승에 앞장서 왔다. 빈객 차영민 부회장님과 김가영 부회장님께서도 각각 서울지부장, 교육위원, 자격검정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시며, 인재 양성과 차문화 보급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협회 발전을 위해 동고동락해 오신 세 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행된 경수연 진헌다례의 집례는 박광옥 협회 부회장과 김구환 서울제2지부 전문사범이 맡았다.

수제천 음악이 그랜드볼룸에 울려 퍼지면서 집례자인 김구환 전문사범의 '좌우집사자 빈주, 빈객 점시청'이라고 소리치자, 박광옥 부회장이 '좌집사, 우집사는 빈주와 빈객의 의복을 점검하고 이동 시의 동선과 의례절차를 설명합니다.' 라고 활기를 읽는 것으로 경수연 진헌다례를 알렸다.

경수연 내내 풍류 악단의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 홀 안

은 흥겨움과 함께 잔치 분위기를 연출했다. 경수연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빈주 최소연 이사장, 빈객 차영민, 김가영 부회장. 이수자 대표 강순란 부회장. 선물 증정식에는 조정미, 박경숙, 서난경, 황미경 지부장이 했다.

집사자는 문차남 이수자, 안난희 전문사범. 봉다관에는 김경자 이사, 전유자, 주순복 전문사범. 찬인에는 류소영 이수자, 정순영, 허유진 전문사범. 찬자에는 장효순 이사, 최성미 전수장학생, 윤라영 전문사범. 행사 진행에는 최지은, 조민진, 정상임 전문사범 등이 맡았다.

1시간 동안 진행된 경수연 진헌다례에는 회원 300여 명과 외부 귀빈 30여 명이 참석하여 화려하게 펼쳐졌다. 경수연 진헌다례를 알리는 수제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집례자인 김구환 전문사범이 한문으로, 박광옥 부회장이





2025. 08. 23.



2025. 08. 23.



김가영 부회장

우리말로 읽기 시작했다.
빈주 최소연 이사장은 빈객들에게 “저에게 이런 과분한 잔칫상을 마련해 주어 행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게 있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자리로 기억될 것입니다. 회원 및 임원 여러분께서 경수연 행사를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을 생각하며, 오늘 마음껏 즐기 위해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했습니다. 참 잘했지요? 임원 여러분의 배려와 격려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 또한 남은 생애 규방다례 보전과 발전에 더욱더 정진하라는 의미로 새기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실 거죠? 저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힘의 원천입니다. 협회에 새롭게 등록하는 회원과 교육생을 볼 때마다 힘이 솟아납니다. 제힘의 원천이 이제 어디인지 아시겠죠?



차영민 부회장

사실은 한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집 가훈이 ‘남에게 나이를 알리지 말라’입니다. 제가 교수 정년퇴직 때 나이가 한번 알려지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제 나이를 말하지 마세요. 정말 비밀입니다. 꼭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경수연을 마련해주신 회원님과 이수자님들의 사랑과 정성 잊지 않고 오래도록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영민, 김가영 부회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도 행복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빈객 차영민, 김가영 부회장은 “경사스럽고 뜻깊은 경수연 진헌다례에 초대 배석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최소연 이사장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만

수무강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례 인사를 올렸다.

강순란 이수자 대표는 “우리 협회의 든든한 뿌리이자, 대한민국 차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 오신 최소연 이사장님, 한국 차문화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고, 지부장과 자격심 의위원, 교육위원으로서 귀한 역할을 다해주고 계신 차영민 부회장님과 김가영 부회장님의 경수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삶의 지혜와 따스 한 격려로 큰 울타리가 되어주신 세 분의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며, 세 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수무강하 시옵소서.”라고 답례했다.

참석한 회원 및 내외 귀빈 모두는 단상에 계신 세 분께 만수 무강을 기원하는 큰 절을 올렸다. ㉔



다식을 준비해 주신 지부 및 임원

- 차영민, 김가영 부회장 전회원께 공설기를 답례품으로 전달
- 강원: 녹차 다식
- 경남: 견과 모나카
- 대구경북제1: 송화 다식
- 서울제1: 오미자색 다식
- 서울제2: 흑임자꽃다식, 개성약과, 개성주약, 양갱
- 수원: 견과류 정과
- 아산: 과일바구니
- 인천: 과일바구니
- 전남: 녹차 오란다
- 전북: 흰색 다식
- 충남: 약식(2말)
- 충북: 노란콩 다식
- 3단 떡케익: 파이낸셜뉴스 한갑수(본부장), YTN 정희인, 나경환(국장), 한국경제 정진욱(부장)
- 화환: 이사모, 무형유산 총연합회
- 화분(꽃바구니): 단청장 정성길, 목조각장 이방호

경수연 진헌다례 기념촬영

이수자, 임원, 내외 귀빈 등 300여 명이 참석

(사)한국차문화협회 규방다례의 다법을 바탕으로 여러 기록과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여 협회 최소연 이사장님 팔순에 차영민, 김가영 부회장님을 모시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경수연 진헌다례」 자리를 마련했다. 경수연 진헌다례는 전국 27개 지부의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諸執事(제집사) : 8명

- 執禮(집례) 2인(한문, 우리말)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 : 박광옥 부회장, 김구환 전문사범
- 執事者(집사자) <집례를 돕는 사람> 2인 : 문차남 이수자, 안난희 전문사범
- 奉茶官(봉다관) <차 달이는 사람> 3인 : 김경자 이사, 전유자 전문사범, 주순복 전문사범
- 贊者(찬자) <봉다를 돕는 사람> 3인 : 장호순 이사, 최성미 전수장학생, 윤라영 전문사범
- 贊引(찬인) <인도하는 사람> 3인 : 류소영 이수자, 정순영 전문사범, 허유진 전문사범
- 獻茶官(헌다관) <차를 올리는 사람>
- 진행요원 최지은, 조민진, 정상임 전문사범



규방다례 이수자, 지부장, 이사, 전수장학생, 임원, 제집사 등이 세 분을 모시고 기념촬영



무형유산 규방다례 이수자



이사모(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을 사모하는 모임) 회원과 서울대학교 국악과 악단 등 외부 인사와 함께



23기 차문화대학원생들과 함께



신순호, 김태수 지도위원과 함께



협회 사무처 민달래 팀장, 규방다례보존회 유현주 팀장, 편집장 고만송 등과 함께

만수무강을 기원한 각 지부 회원들

「경수연 진헌다례」는 조선시대 장수를 기원하고 웃어른께 존경을 표하던 예식으로, 차문화의 예절과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사)한국차문화협회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발전 보급하고자 2025년 「경수연 진헌다례」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 차문화 발전에 헌신해 오신 최소연 이사장님과 차영민, 김가영 부회장님을 모시고 진헌다례를 재현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세 분께서는 협회의 발전을 위해 각종 현안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한국 차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화를 위해 큰 공헌을 해오셨기에 협회 회원들이 마음을 담아 「경수연 진헌다례」 자리를 마련했다.



박광옥 서울제2지부장과 회원들



서남경 전남지부장과 회원들



조화미 교토지부장, 정경희 수원지부장과 회원들



강순란 충남지부장, 연규남 경기지부장, 조정미 부산지부장과 함께



이기분 서울제1지부장과 회원들



이림 전북지부장과 회원들



박삼숙 이사와 광주지부 회원들



황미경 경남지부장과 회원들



박숙희 총복지부장과 회원들



박경숙 대구제1지부장과 회원들



김미숙 강원지부장과 회원들



김태임 아산지부장과 회원들



최지원 인천지부장과 회원들

제65회 한국차문화협회 하계연수회 성료

특강과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증 수여로 풍성한 결실

협회는 지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화성시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도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 전국 27개 지부(일본 교토 지부 포함) 회원(차인) 300여 명이 전통한복을 입고 참석해 다례(茶禮)교육과 다양한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하계연수회는 정오부터 접수를 시작으로 오후 1시까지 입실을 마치고 개회식을 했다.



2025. 08. 23.

한국 차문화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 08. 23.



최소연 이사장 개회사

개회식에는 최소연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과 국내외 27개 지부 회원과 임원, 회원, 내외귀빈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례와 선고차인에 대한 묵념에 이어 최소연 이사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협회는 매년 하계와 동계, 두 차례 연수회를 통해 차문화의 저변 확대와 회원 상호 간의 교류, 그리고 협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65회 하계연수회 역시 단순한 교육을 넘어, 한국 차문화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는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과 특별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경수연 진헌다례」가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경수연 진헌다례」는 조선시대 장수를 기원하고 웃어른께 존경을 표하던 예식으로, 차문화의 예절과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자 스스로 문을 두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한복과 김치, 한글, 음악, 드라마, 영화 등 K-문화 콘텐츠가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문화 속에 담긴 인간 존중, 배려, 절제의 정신이 전 세계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지키고 계승할 때 비로소 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차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전통 차문화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했다.

강정자 부회장의 지휘 아래 협회가 제창을 마친 다음 안선재 수사의 “한국 차문화의 역사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안선재 수사는 한국의 차문화 전반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차가 “13세기 한국의 역사서인 삼국유사에는 가야의 전설적인 여왕 ‘허황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김해지역에서 널리 믿어지는 전설에



안선재 수사/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선물을 증정하고 있는 김가영 부회장

따르면, 그녀는 전설적인 아유타국(인도에 있다고 전해지는 나라)에서 배를 타고 도착하여 서기 48년에 가야의 수로왕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야생차의 기원이 되는 차 씨앗을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인도에는 차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차의 종류, 차의 재배지, 차의 효능, 차가 가진 힘 등에 대해서 1시간 30분 동안 열띤 강의를 해주었다.

가천대학교 부속 길한방병원 송윤경 병원장은 ‘중년여성 근육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우리 협회 회원 대부분이 여성이 많은 관계로 송윤경 교수의 특강은 큰 인기를 얻었다.



2025. 08. 23



2025. 08. 23



2025. 08. 23



2025. 08. 23



2025. 08. 23

송 교수는 “바른 자세와 근육의 질이 건강 나이를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다양한 자세와 체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속근육이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자목, 굽은 등, 골반 어긋남, 둥근 어깨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근육과 척추질환에서 송 교수는 자세 교정을 위한 필수 운동으로 심호흡 - 횡격막 이완과 상체운동으로 1. Side bending 2. 흉근 스트레칭 3. 광배근 운동 + 삼두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하체운동으로 1. 무릎중심 이동 - 한 다리 뒤로 2. 한 다리 서기, 3. 엉덩이 근육과 슬관절, 내전근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기를 권장했다. 🌸



송윤경 가천대학교 교수 특강



선물을 증정하고 있는 최소연 이사장



임명장 수여 및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개최

특강을 마친 후에는 임명장 수여와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이 열렸다. 신입 교육위원이 된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은 수십 년 동안 대구 경북 제1 지부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고, 협회에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을 하여 회원들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다.

최소연 이사장과 교육위원 전원 추천으로 신입 교육위원이 된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의 활동을 기대한다.

이어서 인성차문화 예절지도사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전문사범은 준사범과 지도사범을 거쳐 1년 심화과정을 마친 회원으로, 등록 민간자격인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과 인성교육예절지도사 1급이 수여된다. 준사범 교육과 지도사범 교육과정(4학기)을 마친 회원은 각각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과 2급의 자격증이 수여된다. 또한 성적 우수자와 개근상, 공로상, 화목상 등을 시상해 그간의 노고를 위로했다. 지금까지 수료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는 총 4000여 명에 달하며 전국 26개



자격취득자 전체 선서



협회 지부장과 임원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선서>

인은 사단법인 한국차문화협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을 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사범의 준수 사항 -

하나. 나는 법인단체의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하나. 나는 우리 차문화를 생활화하여 애국하고 한국차문화 보전에 최선을 다 한다.
하나. 나는 식음료의 다양성으로 급변하는 시대 우리 차생활을 국제안목으로 연구하고 인성차예절 및 질서있는 생활에 앞장선다.

하나. 나는 동-하계 연수 및 차문화 행사에 년1회 이상 참여하고 사범으로서 책임을 실천한다.

하나. 나는 3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스스로 인격 함양을 위하여 노력한다.

위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스스로 자격증을 협회에 반납하고, 별도 회신이 있을 때까지 일체의 지도활동을 자숙하겠으며, 자격규정 상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8월 24일



폐회식

2025. 08. 24.

지부와 해외의 교토지부에서 회원 3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차문화협회는 매년 3, 9월에 1년 과정인 한국차문화대학원(전문사범)과 2년 과정인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지도사범)과정을 시작하며, 매년 200여 명의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 밖에 4월에는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청소년차문화전'을, 9월에는 '전국인설차문화전 차예절 경연대회'를 열어 미래의 차인을 양성하고 있다. ☁



박경숙 신임 교육위원 임명장 수여

교육위원 임명장 수여

-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

준사범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3급 자격증 수여자(13명)

지도사범

- 개근상(2명) : 상장, 상품(3인 다기)

- 화목상(1팀) : 상장, 상품(3인 다기)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2급

인성교육예절지도사2급 자격증 수여자(11명)



개근상



서울제2지부 화목상



협회 지부 격려금 전달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증 수여자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증 수여자

차음식, 세계화에 앞장서다

2025년 차의 날 차음식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자들

제36회 차음식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영광의 얼굴들을 소개한다. 수상 소감과 레시피, 차음식을 만들게 된 동기 등을 소개한다. 이번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고,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편집자 주>

인천광역시 시장상 수상자

차와 다과, 그리고 공간 연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글 전남지부 최우수상 지도사범 류석진



전남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사범 류석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제45회 차의 날 기념 제36회 전국 차인 큰잔치' 최우수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저는 단순히 차 한 잔을 올리는 것을 넘어, 차와 다과, 그리고 공간 연출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했습니다. 출품작의 주제는 '설록홍(雪綠紅)'이었으며, 이 한 잔에 계절과 색,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설록홍 레시피]

- ① **베이스차** : 국내산 고급 녹차(설록)
- ② **추출 방식** : 찬물에 6시간 이상 저온 우림 (더치커피 내리는 방식을 응용)으로 깊고 부드러운 향을 살림
- ③ **포인트** : 직접 만든 딸기시럽과 우려낸 녹차와 우유 그리고 맨 위에 가루차의 미세 거품을 얹어, 초록과 붉은색 대비로 '설록홍'의 이름을 구현
- ④ **맛의 조화** : 녹차의 은은한 짙음, 딸기의

산뜻한 단맛, 가루차 거품의 부드러운 질감이 어우러져 계절의 변화와 조화를 표현

[다과 - 오방색 양갱]

찾자리는 오방색의 의미를 살려 만든 수제 양갱으로 구성했습니다.

- ① **오방색 양갱** : 청(靑)·적(赤)·황(黃)·백(白)·흑(黑)을 각각 표현하여 동서남북과 중앙, 그리고 오행의 조화를 상징
- ② **양갱 재료** : 천연색을 내기 위해 가루차, 당근, 흑임자, 팥, 우유 등을 사용

[찾자리 꾸밈]

- ① **테이블보** : 은은한 엔틱 자수 테이블보로 차분한 분위기 연출
- ② **소품** : 은그릇과 은 크리스털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조선 시대 선인들이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은 제품 식기를 사용하던 전통에서 빌린 것입니다. 은은 고귀함과 청결을 상징하며, 음식의 안전성을 높인다고 믿어져 귀한 자리에서 애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현대의 찾자리 연출에



접목하여, 전통의 품격과 현대의 감각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 ③ **꽃장식** : 연분홍 장미와 소국(小菊)을 작은 화병에 꽂아 계절감을 살림
- ④ **차도구** : 가루차 거품기와 현대적인 유리 더치 티포트를 함께 배치해 전통과 현대를 연결

이 모든 구성은 '차를 통한 나눔과 소통'을 주제로, 차의 색과 향, 그리고 다과의 맛과 모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기획했습니다. 다관 속에 우려낸 것은 단지 차의 향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

다. 이번 상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남지부에서 함께 배우고 나눈 많은 분의 도움과 격려 덕분입니다.

또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전통 차 문화의 아름다움을 현대인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더 많은 사람이 차 한 잔의 온기와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천문화재단 이사장상 수상자

차밭에서의 하루

글_전북지부 최우수상 사범 윤성진



언젠가 한 번쯤은 개념적이고 구조적인 음식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제36회 차음식경연대회는 드디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볼 이유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입체 디저트였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을 예상했고, 실제로 여러 난관이 있었습니다.

차나무의 생애와 차밭이 한 해 동안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구상했던 주제이고, 이번 출품작인 '차밭에서의 하루'는 하루를 보내는 시간뿐만 아니라 계절의 흐름, 차나무가 겪는 생애의 변화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6대 다류의 차의 채엽 과정이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이 주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작품의 핵심 목표는 차밭 전체를 100% 식용 재

료로 구현하는 것,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다과 문화를 조화롭게 녹이고자 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서로의 문화와 재료가 조화를 이루기를 바랐고, 개인적으로는 일상 찾자리에서도 기본 2~3종류의 다른 차를 마시기에 오랜 시간 즐겨도 질리지 않도록 다양한 종류의 다과를 담고자 했습니다. 단순한 퓨전이 아니라, 동서양의 재료와 기법이 어우러져 새로운 미감을 만들어내는 조화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참쌀떡 꽃잎은 3년간 바닐라빈을 인퓨징한 설탕으로 반죽하고, 통영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유기농 유자 껍질을 당절임하여 꽃술을 만들었습니다. 참깨 강정으로 표현한 가지에는 달걀흰자와 설탕으로 입혀 굳힌 다양한 민트 허브, 유기농 제주 가



루차와 분유를 섞어-진하게 우린 차에 어울릴 얇은 쿠키, 깨끗이 씻은 진짜 찻잎에 제주 가루차와 화이트초콜릿을 입혀 잎맥과 형태를 그대로 살린 초콜릿 잎을 올렸습니다. 또한 참쌀떡을 초콜릿으로 코팅하여 차씨를 표현하고, 차가 자라나는 흙은 케이크 위에 분쇄한 깨강정과 쿠키를 뿌려 연출했습니다.

이 작업에는 '실화상봉수(實花相逢樹)'라는 개념을 담았습니다. 푸른 잎, 꽃, 열매와 씨가 동시에 열리는 차나무는 선대, 현대, 후대가 공존하는 유일한 식물입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대가 이어지는 인간사의 이치와 닮아 있어, 저에게는 차를

배우며 얻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차밭의 모든 부위가 식용이 되도록 철사나 이쑤시개,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고, 로열 아이싱과 코팅 초콜릿으로 서로를 부착하였습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더웠던 대회 당일, 구조물이 녹아 내려 본래 기획의 입체감과 비주얼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큰 아쉬움은 내년을 향한 소중한 발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는 차인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고 싶습니다. 차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차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으로, 한국차문화협회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상 수상자

차와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봄의 향연

글_경남지부 최우수상 사범 고은희



몇 년 전, 평소 차에 관심 있어 한국차문화협회 경남지부에 입문하였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차와 차문화에 관한 공부를 하다 보니 다식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급 교육에서는 망설이다 차문화대학원 과정을 하며, 2025년 차의 날 '차음식경연대회'에 도전해보고 싶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지부 수업 때 배운 다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품이 어떤 것일까 고민한 끝에 여러 가지 정과를 색다른 디자인으로 담고자 했습니다. 정과의 장점은 구하기 쉬운 재료와 비교적 단순한 조리 과정인데 손질할 수 있을 정도로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말린 정과를 꽃 모양을 만들어 하트 통에 이쁘게 꾸며 보았습니다.

운 좋게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결과에 개인적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아이디어에 도움을 주신 선배 사범님과 응원해주신 지부장님과 경남지부 사범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과 레시피]

재료 : 무, 금귤, 사과, 당근, 물엿, 설탕, 소금

<무정과>

- ① 무를 깨끗하게 씻어서 얇게 슬라이스한다.
- ②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얇게 썬 무를 살짝 데친다.
- ③ 데친 무를 치자색, 백년초색을 넣고 하루밤 재운다.
- ④ 무를 건져서 가운데 잣을 넣고 반을 접어 건조기에 말린다.
- ⑤ 예쁘게 세팅한다.

<금귤정과>

- ① 금귤은 식초, 베이킹파우더를 넣고 깨끗하게 씻는다.
- ② 반 잘라서 씨를 빼고 물엿, 설탕, 소금을 넣

고 윤기 날 때까지 조리 후 건조기에 말린다.
③ 예쁘게 세팅한다.

<사과정과>

- ① 사과를 식초, 베이킹파우더를 넣고 깨끗하게 씻는다.
- ② 슬라이스해서 식초 물에 잠깐 담근다. (갈변 제거)
- ③ 치자색, 백년초 가루를 물엿과 설탕물을 만들어 하루밤 재워서 잘 말린 후 예쁜 장미 모양을 만들어 세팅한다.

<당근정과>

- ① 당근을 깨끗이 씻어 필러로 깎는다.
- ② 둥글게 2~3mm 두께로 슬라이스한다.
- ③ 냄비에 물을 끓여 살짝 데친 후 위 재료를 넣고 고온 → 중불 → 약불로 조리한다.
- ④ 예쁜 색깔(가운데 심이 가장자리 색이 다 나오면)로 줄여지면 채반에 건져 식힌다.
- ⑤ 꾸듯 꾸듯할 때까지 말린다. (한 장 한 장 펴서)
- ⑥ 한 장씩 붙여가며 장미 모양이나 동백꽃 모양을 만들어 예쁘게 세팅한다.



인물 포커스 _ 신임 교육위원



대구경북제1지부장 박경숙
신임 교육위원

이력

대구 미래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무형문화재 규방다례 전수인증서
한국차문화협회 영남지부 임명장
경북인성회 교육원 자문교수
무형유산 규방다례 이수자
차음식경연대회 최우수상
한국차문화협회 경북최우수지부 선정
현: 대구경북제1지부장

생동감 있는 교육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국차문화협회 교육위원으로 추천받은 대구경북제1지부장 박경숙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으로 추천해주신 최소연 이사장님, 그리고 교육위원이자 부회장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차문화를 접한 지도 어느덧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차문화를 사랑하는 다우님들과의 인연은 언제나 행복했고, 아름다운 분들과의 소통은 언제나 제게 즐거움이었습니다. 많은 고비 속에서 저는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 주었고 그 덕분에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從心所欲不踰矩(중심소욕불유구)라는 논어의 구절이 떠오릅니다.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공자의 가르침처럼 저는 저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차는 배려이고 나눔입니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실천 예절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교육위원회 발전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 성주군 시군역량강화사업 '다도교실' 진행

10주간 20명 대상 생활다례 결실을 거두다

글.서울제1지부 최정희 이사



“육십 평생 처음 보는 찻자리입니다.
이렇게 예쁘고 우아한 것이 무엇인지요?
다식이라고 합니다.”

구절판 테이블 위에 차려진 차와 다식을 보고 모두
어떻게 먹느냐? 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처음 보는 찻자리.
많은 귀빈의 놀라움에 나의 입꼬리는 점점 올라간
다.

2025년 성주군 시군역량강화사업 가천면 복지회
관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
주간 '다도교실'을 진행하였다.

처음으로 접해보는 차와 다례, 다식 등으로 10주
라는 긴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따라와
주었던 주민들. 서서히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모
습들이 영화처럼 나의 뇌리를 지나간다.

생활다례 시연과 함께 시작된 찻자리에 많은 분이
감탄을 자아냈다. 짧은 10주간의 결과물을 만들어
낸 나는 한국차문화협회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차문화협회 이사로서 큰 자긍심을 가지게 되
었다.

도의원, 군의원, 군수 사모님에게 우리 협회를 소
개하고 무형유산 규방다례도 소개하였더니 처음
보는 다레이지만 아주 아름답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3년 전부터 조금씩 재능기부 차원에서 시작된 다
도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작년부터는 각 면에서 다
도 프로그램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 처음 차를 접
하는 마을주민들에게는 행다는 처음부터 무리라
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통 디저트라는 이름으로 차
를 쉽게 접하기 위한 것으로 접근하여 서서히 차를
마시게 하여 다식과 함께 익숙하게 진행한 다음 생
활다례로 진행하였더니 모두들 부담 없이 받아들
였다.

이제는 '가천 다도 동아리'라는 하나의 차를 사랑하
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8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선
남면 주민들의 힐링 프로그램(다도, 전통 디저트)
이 18주간 진행된다. 장장 4개월 넘게 진행될 다도
프로그램에서 또 어떤 변화의 결과물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의 가슴은 서서히 또 한 번의 모험을
향해 나아간다. 내가 차를 알게 되었던 순간부터
차가 나의 열정이 된 이 순간까지 뜨거운 여름을
차와 함께 살아가련다. ☺



글_문학 박사
강원지부장 김미숙

고려 팔관회를 통해 본 의례문화(1)

정례(定例)의 틀을 넘어서는 흥과 조화의 실재(實體)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8월, 대지는 푸르름으로 가득하다. 이 맹렬한 기운 속에서 천 년 전 고려 팔관회가 열렸던 늦가을의 개경을 상상해 본다. 비록 팔관회는 가을에 거행되었지만, 국가의 평안을 염원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 했던 그 뜨거운 열정은 오늘날의 태양만큼이나 강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장엄한 의례의 중심에는 한 잔의 맑은 차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고려 팔관회를 단순히 불교 행사로만 기억하지만, 이는 곧 국가의 정체성이 담긴 종합적인 문화 의례이자 차(茶)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핀 현장이었다. 팔관회는 여러 왕의 재위를 거치며 의례의 정형성을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차문화는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 의례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고려 팔관회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 후 국가 통합과 왕권 강화를 위해 정례화한 국가적 의례이자 축제였다. 팔관회는 단순한 불교 행사를 넘어 민족 고유의 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복합적인 의례였으며, 국가의 중요한 행사로서 진다의식(進茶儀式)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차문화가 의례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고려 팔관회의 정례화

팔관회는 신라시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에 이르러 국가 의례로 정례화되었다. 태조는 943년 임종을 앞두고 후대 왕들에게 전하는 ‘훈요10조’(信書訓要十條1)를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¹⁾ 여기서 2월의 연등회는 불교 행사로, 11월의 팔관회는 불교 의례에서 기원했지만, 고려 시대에는 하늘신, 명산대천, 용신 등 토속신을 위한 제사와 함께 국가와 왕실의 안녕, 풍년 기원 등 호국적,

민족적 성격을 강하게 된, 천령(天靈) 등을 위한 속신 의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국민 통합과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불교에 연원한 팔관회는 연등회(燃燈會)와 더불어 왕실오례의 가례잡의(嘉禮雜儀)로 정착되었던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국가 의례의 하나인 팔관회(八關會)의 의례문화(儀禮文化)에 대하여 다루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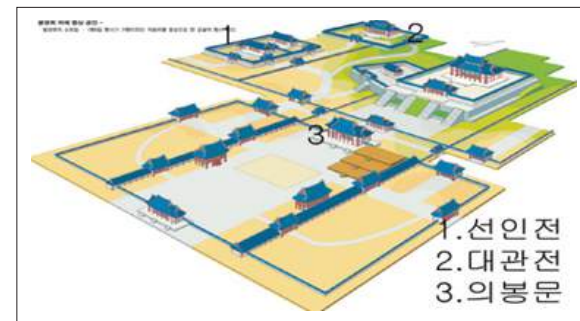
팔관회는 정종 원년(1035년)에 그 의례 절차가 정형화되었으며, 고려 왕조 475년 동안 꾸준히 설행되었던 주요 행사였다. 고려시대의 불교의례 전체 설행 횟수(986회)중 그 비율이 11.7%(115회)였다. 97중에 이르는 많은 불교의례 중 팔관회는 네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팔관회는 고려의 불교의례 중 중요한 의례였으며, 왕실의 후원 아래 개최된 정규 의례였다. 고려사회에서 팔관회가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의례가 고려인들의 인생관, 사회관, 세계관이 투영된 국가적 행사였다는 점이다. 고려의 국왕들은 태조 대부터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 때까지 팔관회를 정기적으로 설행한 기록을 볼 때 팔관회가 고려 사회에서

의 역할과 기능이 심대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다.²⁾ 고려 팔관회 의례는 매년 10월에 서경에서, 그리고 11월에 개경에서 15일을 전후하여 3일간 열렸다. 태조(918~943)가 고려를 건국한 해부터 팔관회가 설행되었지만, 그 의례는 제10대 임금인 정종(靖宗1034~1046)대에 정형화된 틀을 갖추었으며, 『고려사:高麗史』³⁾ 기록되어 있다.

중동팔관회의(仲冬八關會儀)에 의하면, 태조는 구정의 사방에 등불을 달고 채봉을 설치하여 백희가무를 공연하였다. 백관은 도포를 입

고 홀을 들고 예를 행하였으며, 구경하는 사람이 도성을 뒤덮어 밤낮으로 즐겼다. 하지만 최승로가 팔관회의 백희와 가무가 불경스럽고 문란하며 많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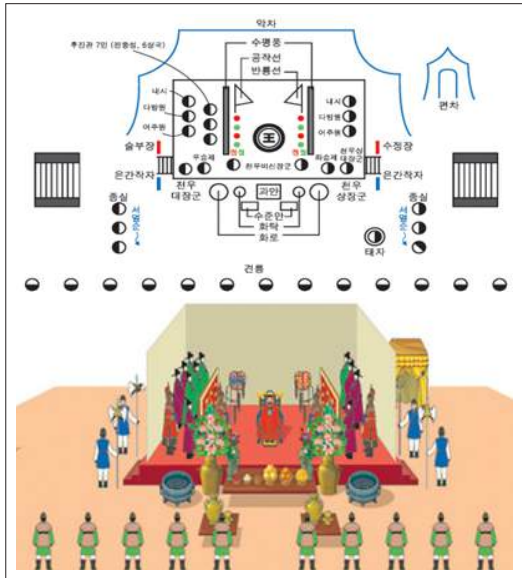
〈도-1〉팔관회가 열렸던 개경 만경대 행사장 복원 이미지.
국왕은 편전인 선인전(宣仁殿)을 출발해 대관전(大觀殿)으로 행차한다. 근시관들에게 조하(朝賀)를 받은 후 위장대의 호위 하에 의봉문루(儀鳳門樓)에서 구정(秘庭)에 도열한 문무백관들로부터 조하를 받았다. (출처: (주)프리진 / 오마이뉴스)

1) 김미숙, 『高麗 八關會의 儀禮文化 研究』, 원광대 박사논문, 2013, p.50.
2) 김미숙, 앞의 논문, “〈표3〉 재위별 불교의례와 팔관회,” 참조, pp.51~53.
3) 『高麗史』卷69 志23 禮11 嘉禮雜儀에 실려 있는에 잘 정리 기록.

용이 소비된다고 비판하였다.⁴⁾ 이에 성종(981~997)은 즉위년(981) 팔관회에서 백희가무를 폐지하고 법왕사(法王寺)⁵⁾ 분향과 군신들의 조하를 받는 것으로 팔관회 의례를 축소하였다.⁶⁾ 이후 성종 6년(987)에 양경(兩京)의 팔관회를 모두 폐지하였다. 팔관회가 다시 부활한 것은 23년만인 현종 원년(1010)이었다. 복설된 팔관회는 정종 대에 이르러 정례화된 의례의 형식을 갖추었다. 고려 팔관회는 의례 때 행사 전날 예행연습을 하였다.

의례 하루 전날 좌·우 추밀과 시신 및 의장대·호위대, 악대는 대관전으로부터 열을 지어 의봉문으로 나오고 재신 이하 문무백관들은 모두 정해진 자리로 가서 의례를 연습한 후 읍하고 물러간다.⁷⁾

위의 기사에 의하면 팔관회의 의례가 복잡하므로 예행연습이 필요했겠지만 사전 연습을 하였다는 것은 팔관회의 의례가 매우 중요시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도·2> 팔관회에 참가한 왕을 비롯한 문무대신들의 대열 배치도 및 그래픽 복원 이미지.

백희가무와 음악 공연을 관람하고 술과 음식을 즐기면서, 태자를 위시한 문무 관료들이 국왕에게 술잔을 헌수하거나 꽃을 바치면, 국왕이 참여자 모두에게 술과 꽃, 과일, 봉약(封藥)을 하사하는 순서로 행사가 진행됐다. (출처: (주)프리진 / 오마이뉴스)

팔관회의 소회와 대회일 행사

중동팔관회의에 의하면 고려 팔관회 행사는 소회(小會)와 대회일(大會日)로 나뉘어 이틀간에 걸쳐 설행되었다.⁸⁾

이를 소회와 대회일 순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4) 『高麗史』卷93 列傳6 崔承老, “...時務計二十有八條...我國 春設燃燈 冬開八關 廣徵人衆 勞役甚煩 願加減省 以紓民力 又造種種偶人,工費甚多 一進之後 便加毀破 亦甚無謂也 且偶人非凶禮不用 西朝使臣 嘗來見之 以爲不祥 掩面而過 願自今勿許用之.”
- 5) 고려 태조 2년(919)에 창건한 開京 10대 사원의 하나로, 延慶宮의 동쪽에 위치한 華嚴宗계열의 사원이다. 공민왕 때까지 국왕들이 행차하여 八關會를 열고 行香하는 등 팔관회를 지속적으로 주관하였으며, 百座道場도 여러 차례 베풀었다. 법왕사가 팔관회를 주도한 배경은 팔관회가 화엄사상의 法界觀과도 연결되고, 팔관회가 백성과 왕실을 연결시켜 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 6) 『高麗史』卷3 世家3 成宗 卽位年(981) 11月, “冬十一月 丁酉...是月 王以八關會雜技 不經且煩擾 悉罷之 幸法王寺行香 還御秘庭 受群臣朝賀.”
- 7) 『高麗史』卷69 志23 禮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小會, “前一日 左右樞密侍臣仗衛樂部 自大觀殿陳列 出儀鳳門 宰臣以下 文武百寮 俱就沙墀位 肄儀訖揖退.”
- 8) 『高麗史』卷69 志23 禮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1) 소회 행사

- ① 어연을 준비하고 의장을 진열하여 국왕을 기다린다[儀仗陳列].
- ② 국왕이 자황포 차림으로 궁에서 나와 의봉루에 이른다[鑾駕出宮].
- ③ 국왕이 의봉루에 올라 곤룡포로 갈아입고 선왕의 진영에서 북향제배하고 잔을 올린 후 다시 두 번 절한다[祖眞酌獻].
- ④ 국왕이 신료들의 하례를 받는다[坐殿受賀]. 좌전수하는 아래의 순서대로 여법하게 진행된다.
 - ㉠ 국왕에게 하례를 올리기 전에 태자를 포함한 모든 신료들은 품계에 따라 각자 정해진 자리에 선다[臣僚定向].
 - ㉡ 자리가 정돈되면 국왕은 자황포 차림으로 하례를 받는다[國王受賀].
 - ㉢ 국왕에게 차를 올리고 신하들이 국왕에게 술을 올린다[進茶獻酒].
 - ㉣ 3경 유수와 동서병마사 및 8목 4도호가 바치는 표문을 휴대한 관원들이 하례를 올린다[封表朝賀].
 - ㉤ 국왕이 신료들에게 차를 베푼다[國王施茶].
 - ㉥ 음식이 이어지고 만방정주 구성이라는 아악이 연주된다[飲食奏樂].
 - ㉦ 모든 신하들에게 술과 음식이 내려진다[酒食下賜].
 - ㉧ 시봉군인들에게까지 주과를 내리고 별잔을 하사한다[別盞下賜].
- ⑤ 협률량이 휘를 높혀 주악이 그치면, 태자 이하 신료들이 국왕께 청송의 말을 올리고 소회는 끝이 난다[小會終了].

(2) 대회일 행사

- ① 난가출궁의식은 소회와 같다.
- ② 대회일좌전에서 소회에 참석했던 태자 이하 대소 신료들의 朝賀가 없이 의식이 진행된다. 대회일좌전은 아래의 순서대로 여법하게 진행된다.
 - ㉠ 국왕이 어좌에 앉으면 신료들은 문안 인사를 올린다[國王臨席].
 - ㉡ 송나라 도강 등 외국인들의 하례를 받는다[外人朝賀].
 - ㉢ 외국인들이 올린 공물을 인덕문에서 궁전을 통과해 의창문으로 나가게 한다[貢物公覽].
 - ㉣ 태자 이하 신료들에게 차와 음식을 내린다[進茶進食].
 - ㉤ 국왕에게 壽酒를 올리겠다고 주청한다[獻酒奏請].
 - ㉥ 국왕에게 꽃을 올리고 만수무강을 빈다[獻花祝壽].
 - ㉦ 국왕이 꽃과 술을 내린다[御施花酒].
 - ㉧ 대소 신료들에게 별잔을 내린다[別盞下賜].
 - ㉨ 국왕에게 차를 올린다[進茶國王].
 - ㉩ 국왕에게 술을 올린다[獻酒國王].
 - ㉪ 국왕이 대소 신료들부터 시봉군인들에게까지 주과를 내린다[酒果下賜].
- ③ 국왕이 궁전으로 올라가고 신하들이 읍하고 물러난다[大會終了].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시기적으로는 11월 보름을 전후하여 3일간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14일에는 소회일, 15일에는 대회일 행사를 거행하고, 16일 하루 동안은 쉬도록 하는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봉행하였다.

[고려 팔관회의 축제 분위기는 겨울호에 심습니다.]



한문교육학 박사
우리 협회 총복지부장
박숙희

가을날, 차를 즐기다

옥수수나무 열매에 하모니카가 들어 있네.
나나니 나나니 나나나~

여름이면 옥수수 하나 입에 물고 부르던 윤석중 작사, 김성태 작곡의 <옥수수나무>라는 동요이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옥수수, 감자 찢 것을 먹으며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내던 일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에어컨만 바라보는 우리의 여름. 그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무서운 수마와 더위를 뒤로하고 가을이 왔다. 가을이 주는 안도감이 더없이 기쁘고 감사하다.

나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나무가 되어 나란히 서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새들이 하늘을 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새들이 되어 나란히 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피천득(1910~2007) 님의 “축복”을 되새겨 본다. 주어진 일상이 더없이 기쁘고 감사하다. 문득 더 큰 것들의 허상에 사로잡혀 정작 내게 주신 축복의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온 삶이 아쉽다 못해 서글프다. 아니 너무나 슬프다. 일상으로 주어진 소소한 기쁨이 때론 큰 보람이 되고 한 편의 아름다운 시가 되기도 한다. 가을의 정취 속에 아껴두었던 선물 받은 다구를 꺼내어 차를 우리에게 하는 시를 읽어본다.

이규보(李奎報)는 어느 날 남쪽의 지인으로부터 철병(鐵甌, 쇠 주전자)을 얻었다. 술을 지독히 좋아했으나 이제 차의 맛에 흠뻑 빠진 그는 차 한 잔의 가치를 알기에 철병에 물을 끓였다. 철병의 이모저모를 살피며 아름다운 시로 승화된 철병의 모습을 상상하며 소소한 일상의 차생활의 기쁨을 공유해 본다.

猛火服悍鐵
制作此頑硬
喙長鶴仰顧

맹렬한 불이 강한 쇠 녹여내어
주물로 굳혀 견고하게 만들었네
부리는 길어 학이 돌아보는 듯

腹腸蛙怒迸	불룩한 배는 개구리 울음주머니인 양
柄似蛇尾曲	손잡이는 뱀 꼬리처럼 구부러지고
頂如鼉頭癭	모가지는 오리목에 혹이 난 듯
窪却小口甕	입 작은 항아리처럼 우묵한데
安於長脚鼎	다리 긴 솥보다 안정감 있구나
我無文園才	내 비록 사마상여 같은 글재주는 없으나
徒得文園病	다만 그의 소갈병은 얻었나 보다
唯思喚酪奴	오직 차를 부르는 일만 생각나고
已止中酒聖	술에 중독되었던 것은 이미 잊었네
雖無揚江水	비록 양자강의 물은 없으나
幸有建溪茗	다행히 건계(복건성)의 차는 있다네
試呼平頭僕	짐짓 사내종 불러
敲汲寒水井	차가운 우물물 길어 오라 했네
塼爐手自煎	벽돌 화로에 손수 차를 달이니
夜閣燈火爛	한밤중 누각에 등불이 타오르듯 밝구나
初如喉聲哽	물 끓는 첫소리는 목구멍이 막힌 듯 쉼쉼 거리더니
漸作笙韻永	점점 생황 가락처럼 긴 여운이 이어지네
三昧手已熟	다도삼매에 들어 손은 이미 익숙하니
七勸味何并	노동의 일곱 가지 맛과 무엇하러 견줄까
持此足爲樂	이 자족함이 그저 즐겁기만 하니
胡用日酩酊	어찌 날마다 술에 빠져 살까나

어느 날 얻은 철병을 중심 제재로 표현한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실린 <남쪽 사람이 보낸 철병으로 차를 끓여 보다(得南人所餉鐵瓶試茶)>라는 시이다.

남방에 사는 사람이 차 좋아하는 것을 알고 찻물 끓이는 탕관을 하나 보내 주었다. 차인에게 찻물 끓이는 일은 차 못지않게 중요하다. 철로 된 병인데 생김새는 학의 긴 부리 같은 주둥이와 불룩한 배, 손잡이는 뱀 꼬리 같이 굽었고, 모가지는 오리목에 혹이 난 듯 불룩하고 입은 작다. 그런데도 오히려 다리가

긴 솥보다 쓰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다.

철병을 세밀하게 이모저모 묘사한 것으로 미루어 철병에 뚜껑은 없었나 보다. 주물로 단단하게 만든 탕관은 뚜껑 없이 위에서 물을 붓게 만들어진 것 같다. 좁은 입구를 따라 조금 내려가면 혹이 달린 듯 좀 크게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져 물이 끓어도 넘치지 않게 여유를 두었다. 마치 오리의 긴 목에 혹이 난 듯하다. 부리는 길어서 작은 찻그릇에도 물을 따라 붓기에 편하게 되어 있고, 얼핏 보기에는 작은 듯해도 배가 불룩하여 차를 끓이기에 알맞은 양의 물을 넣을 만하다. 차루는 길어 뜨거움을 면할 수 있으니 찻물을 끓여 쓰기에 참으로 알맞은 주전자를 얻은 것이다. 이렇듯 차를 아는 사람이 만들어 선물한 것이니 이규보는 대단히 만족하여 즉시 차를 우리며 그 기쁨을 시로 표현하였다.

‘문원(文園)’은 사마상여(司馬相如, BC 179~117)를 말하는데 중국 전한(前漢) 시대의 뛰어난 문장가로, ‘부(賦)’라는 문학 양식을 완성하고 한무제(漢武帝)의 총애를 받으며 활약한 인물이다. 그에게는 소갈병이 있었는데 무제 때 효문원영(孝文園令)에 임명되었기에 문원(文園)이라 하였다.

나는 문원의 재주는 없고 병만 얻었으니 바로 차를 즐기는 ‘차병(茶病)’이다. 낙노(酪奴)는 차의 별명(別名)이다. 주성(酒聖)은 술을 말한다. 술 좋아하던 이규보는 이제 술은 끊고 차만 즐긴다. 양자강 물은 없지만 건계의 차(建溪茗)가 있다. 건계는 중국 복건성에 있는 차의 명산지이다.

좋은 차는 준비되었으니 양강수(揚江水) 대신 차가운 우물물 길어와 벽돌 화로에 시험 삼아 직접 찻물을 끓인다. 처음에는 마치 목이 멘 것 같이 답답한 소리를 내더니 곧이어 불기운에 화답하듯 생황 소리처럼 청아하게 노래를 한다. 철병을 쓰자마자 손에 익어 만족스럽다. 칠룩미(七勸味)는 당(唐) 노동(盧仝, 약 796~835) <다가(茶歌)>의 ‘일곱째 잔(七碗)’을 말한다. 철병에 끓인 찻물로 점다(點茶)하니 일곱째 잔까지 마실 것도 없이 한 잔의 차로도 충분하다.

철병을 얻은 기쁨과 함께 일상적으로 차를 즐기는 차생활의 기쁨을 진솔하게 노래한 시이다. 차인에게 차와 차도구는 언제나 필요한 물품이다. 차를 마시며 이심전심으로 주고받는 소소한 차 선물은 서로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 일상의 큰 기쁨이요 축복이다. 지난봄 만든 차를 꺼내 본다. 낙엽 쌓인 고궁에서 그리운 벗과 차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오후이다. ☕

불면증, 잠들려고 하면 안 된다!?

수면은 우리 인생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면하는 동안 우리는 몸이 쉬는 것뿐 아니라, 신체적인 피로를 풀고, 정신적인 긴장을 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풀게 됩니다. 또 자는 동안 우리의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

수면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이 취약해질 수 있고, 뇌혈관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당뇨 등의 대사 질환도 걱정해야 합니다. 수면을 적절하게 취하는 것이 여러 가지 건강, 신체적인 상태를 개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면증은 명확한 진단 기준은 없지만 '30분 이상 잠들기 힘들다,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다, 새벽에 일찍 깬다, 자도 피곤하다' 등과 같은 임상적 증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분류를 위한 기준인 DSM-5에서는 불면증의 진단 기준으로 입면장애(잠들기 어려움), 수면유지 장애(자주 깨거나 새벽에 깨는 경우), 조기 각성(예정보다 빨리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수면 문제가 주 3회 이상, 석 달 이상 지속되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낮 동안의 피로, 집중력 저하 등이 동반되면 만성불면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병원 진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불면증이 만성화되면 치료하기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본인은 불면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낮에 피곤하고 졸린다면 야간에 어떤 수면 장애가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이나 수면 중에 코골이 등의 문제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간에 피곤하거나 졸린 분들은 적절한 진료, 치료가 권합니다.

불면증은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다르므로 적절한 원

인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면증의 원인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수면 습관의 문제입니다. 불면증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낮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거나 자려고 계속 애쓰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불면증은 수면 습관을 개선하고, 자려는 노력을 억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수면 습관의 개선,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불면증 환자 중에는 스트레스,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면증의 원인 중 50%는 다른 정신질환과 연계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불면증은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치료와 더불어 수면을 같이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심하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병행합니다.

세 번째는 불면증에서 다른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면 장애를 적절히 발견해서 함께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이나 수면무호흡증, 빈뇨, 다른 질환으로 인한 통증, 약물로 인한 유발, 카페인 섭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에 따라 접근이 달라야 하지만 수면습관이 원인인 경우라면 오히려 자려고 하면 점점 더 만성화되게 됩니다. 우리 뇌 속에는 잠을 조절하는 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각성과 수면을 조절하는 시계가 우리가 일상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나갈 때 잠을 잘 자게 도와줍니다. 자려고 애쓰거나, 오래 눕거나, 낮에 눕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취침 시각과 기상

시각이 불규칙해지면서 불면증은 점점 더 만성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잠을 자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각에 일어나고 졸릴 때 자고,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잠에 나쁜 여러 행동,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거나 낮에 잠을 자거나, 음주, 흡연, 야간에 스마트폰 같은 밝은 빛 노출이 불면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피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수면에 다른 것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환자마다 증상의 양상이 다르므로 약물 치료도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잠이 들지 못하는 분, 자꾸 깨는 분 등 패턴에 따라서도 다르고, 반복되는 질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증 약을 쓰면서 치료해야 합니다. 약물의 상호작용과 부작용, 금기 사항, 과거 치료 반응, 환자 선호, 가격 등도 약물치료 시 고려해야 합니다.

약물치료는 되도록 단기간 사용하는 게 좋고, 효과적인 최저 용량을 투여해 가능하면 약을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고 증상이 호전됐다고 해서 갑자기 안 먹으면 불면이 심해질 수 있어 천천히 줄이면서 수면에 좋은 습관을 들이고 약을 줄여, 중단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약을 사용해야 하는 때도 있는데 매일 투여할 것인지, 간헐적으로 투여할 것인지, 필요할 때만 복용할 것인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졸피뎀, 에스조피클론, 트라이아졸람, 플루라제팜, 멜라토닌 서방정, 독세핀 등의 약이 있는데 각각의 약들이 장단점이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해 복용해야 합니다. ☎

차 차 차

회원 글밭

회원들의 다채로운 차 이야기 속에는 즐거움, 기쁨, 아쉬움, 연민, 사랑, 외로움 등이 묻어 있다. 그 속에는 보석 같은 우리의 일상이 숨어 있다. 이번호에는 각 지부의 회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차와 관련된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원 글밭은 차인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 옥고를 보내주세요.

<편집자 주>



<전남지부 찾자리 제공>

함안향교 다례 수업

국가유산 함안향교의 여름방학 탐구생활

글_경남지부 전문사범 김둘자



7월 마지막 주, 함안향교에서 ‘예의바른 함안 청소년 육성을 위한 예절교육’으로 우리 전통차 제대로 알고 마시기 <차 예절교실>을 열었습니다.

3일간 성균관 유교활성화사업단이 주최하고 문화예술공동체 등과 협업하여 초등학생들의 방학 시간과 함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미술 작가와 함께하는 문자도(文字圖)와 아라가야인되기 가야금 수업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악을 배우는 학생도 있어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차분함이 ‘인성 8 덕목과 다례’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교육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웬만큼 절도 곧잘 따라 하고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상보 다루는 것도 잘하고 차의 맛을 얘기할 땐 다섯가지를 토박토박 ‘신맛, 짠맛, 단맛, 쓴맛, 떫은맛’이라며 답할 땐 대견스러웠습니다. 한 학생의 “에고 죽을 맛”이라는 장난에 순간 모두 빵~터져 웃음꽃이 피기도 했습니다. 우리 차와 정말 잘 어울리는 함안향교에서의 다례 수업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지부장님 오셔서 전교님, 사무장님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말씀도 나눴고, 고은희 사범님의 봉사로 다구 등 정리까지 하고 보니

경남지부의 또 다른 빛을 발한 것 같았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모든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고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함안향교 전교님께서 성균관에서 수여하는 수료증을 주시고 감사와 격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참가 청소년, 감사님, 실무 선생님 등 단체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예절과 다례, 우리 민화, 가야금 배우기로 건강한 여름을 보낸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와 예술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취미 생활도 하며 학교생활을 한다면 너무나 이상적인 학창 시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다례 교육이 나에게도 또 다른 경험으로 여름을 보내는 청량제가 되었습니다. ☺



경남지부 71기 차문화 기행

차문화도 아는 만큼 보인다

글_경남지부 68기 사범반 임현섭



8월 첫째 주 토요일에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71기 차문화 기행을 하였다. 사천 다솔사와 원효정사, 진주 지수부자마을 탐방 후 여민요를 들었다. 지부장님과 교육 사범부장님, 사범반 동기와 동행하였다. 차기행은 지부장님이 매년 수료사범들과 경남의 차문화 유적이나 도예요장, 차명인 등등 탐방한다. 직접 체험하니 차문화를 알아가는 것이 유익하고 즐겁게 느껴진다.

사천 다솔사(多率寺)는 범어사 말사로 지방문화재인 대양루를 비롯해 적멸보궁·웅진전·명부전·선실·요사채가 있다. 현재 원무실로 이용하는 '죽로지실'은 근대 차문화의 산실이며 '안심료'는 만해 한용운 등이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



다. 효당 최범술의 차맥을 있고 있는 원효정사 봉화 스님은 13살에 다솔사에 출가하여 효당 최범술 스님을 시봉하였다고 하신다. 다솔사 반야로차를 이어받아 봉명산 기슭에 차밭을 조성하여 차를 만들고 우리 협회 이귀례 명예이사장과 함께 차 운동을 펼친 차인 1세대로 차문화의 산증인이다. 경남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승산 부자마을은 풍수지리상 명당으로 여기는 곳이다. 지수초등학교는 현재 학교는 폐교되고 '부자 소나무 기업가 정신센터'로 조성되어 교육,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마을이다. 진주 지수 토실마을에 있는 여민요(麗民窯)는 이일과 도예가의 요장으로 1982에 도예에 입문하여 국제도예대전 입선, 찻사발공모전 최고상 등 수상한 중견 도예가이다. 별안간 방문한 여름 손님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사범님이 준비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여민 선생님께서 우려주신 귀한 백차를 마셨다. 지부장님의 세심한 배려로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니 한국차문화협회에 입문하여 2급 수료하는 것이 실감 난다. 초보 차인으로 계속 차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부장님과 선배님, 동기들께도 감사하다. ☺

야외 다실

글_대구경북제1지부 지부장 박경숙



새벽녘 저 멀리 산머리에서
밀려오는 운무가 연꽃 사이
사이로 내려앉으며 춤을 춘다.

하나둘씩 피어오르는 연꽃들은
누가 더 예쁘냐고 소리 없는 외침을
들을 수 있다.

이른 아침 연꽃으로 둘러싼 정자에
앉아 찻자리를 펴 본다.
해돋이 이전 솔솔바람이 차향을
데리고 와서 내 코를 스친다.

한잔을 마셔본다.

무어라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내 가슴을 두드린다.

눈과 코와 입이 감격의 미소로 합창을 한다.
평화로운 아침이다.

여유 있는 시간이면 잔디밭을 다실 삼아
차를 즐긴다.

올여름의 더위는 이렇게 쪽~보낼 예정이다.
어느 곳이든 자리 하나면 나의 야외 다실이 된다.
차인들의 특권이 아닐까. ☺



차 한 잔이 주는 커다란 울림

글_서울제1지부 이사 신연서



강원대학교 호스피스 병동 찾자리에서 다도를 처음 배울 때, 가르침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차인은 언제나 봉사하며, 누군가에게 차를 대접하고, 올바른 정신으로 후학을 이끌어야 한다.”

그 말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 저는 15년 전부터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 병동, 즉 호스피스 병동에서 매주 금요일 아침 찾 자리를 열고 있습니다.

병마의 고통 속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이들에게 차 한 잔을 건네는 시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을 안겨줍니다. 차는 때로 위로가 되고, 때로는 눈물을 조용히 안아주는 존재입니다.

떠나기 전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냐고 감사해 하시던 분도 얼마 전 마지막 호흡을 하시면서 마시던 그 차 한 잔이 마시고 싶다고 하시고 무지개 동산을 떠나신 어르신도 제게는 잊지 못할 아주 고마운 분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평소처럼 다기를 정갈히 놓고 차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무지개방’에서 남편의 곁을 지키고 계시던 한 어머니께서 잠시 차를 드시러 자리에 나오셨기에 조심스럽게 여쭙었습니다.

“누가 아프세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차는 그 어떤 말보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사람의 마음을 뒹는 힘이 있습니다.
슬픔이 오고 가는 자리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은 위로가 되고,
그 위로는 또 다른 이의 마음으로 고요히 번져 갑니다.”

“남편이 저 안에 있어요.”

그 말을 마친 어머니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셨고, 그 모습 속에는 오래도록 눌러 두었던 슬픔이 조용히 퍼져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마주 보며 건너편에 앉아 차를 마시던 한 분의 아주머니는 말없이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가를 닦으시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지개방’의 어머니도 찻잔을 내려놓고, 더는 참지 못한 듯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깊은 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의 딸 또한 암이 뇌까지 전이 되어, 이틀 안에 고비를 맞이할 거라는 이야기를 그날 아침 회진 때 들었다고 하시면서 마음 준비는 하고 있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차는 그 어떤 말보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사람의 마음을 뒹는 힘이 있습니다. 슬픔이 오고 가는 자리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은 위로가 되고, 그 위로는 또 다른 이의 마음으로 고요히 번져 갑니다.

삶의 마지막을 마주한 이들이 머무는 병동 한쪽에

서, 차는 오늘도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다포를 펴고, 다기를 놓고 두 손으로 마음을 담습니다.

차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의 실천이자, 나누는 삶의 고요한 방식입니다. ☯



차문화를 알리고픈 꿈의 첫걸음

인성차예절지도사 준사범을 준비하며

글_전남지부 준사범 박성혜



어릴 적부터 나는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풍경소리를 좋아했다. 사찰에 가면 자연스레 스님들이 내어 주시는 차를 마셨고, 그저 차분한 분위기와 차의 향이 좋았다.

‘다선일여(茶禪一如)’라는 말처럼 차를 마시는 일은 마치 선을 수행하는 것과도 같으니 정갈한 마음가짐과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만 생각은 했지만, 그 예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저 차를 마시는 자리가 좋았고, 보이차가 좋아서 혼자 차 마시기를 즐겼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자연드림 행사가 있었고, 행사에 같이 참여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사)한국차문화협회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차문화협회 전남지부 사무실에 가게 되었고, 처음으로 서남경 지부장님을 만났다. 약속 시간을 착각하는 바람에 늦게 도착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사)한국차문화협회에 관해 소개도 해 주시고 좋은 차도 주셨다.

그래서 바로 (사)한국차문화협회 전남지부에 등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성차예절지도사’라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곧고 올바른 중용의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다도의 정신이지만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예’를 중시하는 만큼, 차를 예절에 맞게 알고 마시고 싶었고, 배운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3급 준사범과정에 도전하게 되었다.

3급 준사범 이론 수업은 서남경 지부장님과 함께 했다. 지부장님은 책을 보지 않고도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가득 채우고 지우고, 채우고 지우고를 반복하시며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셨다.

그 모습에서 차 이론을 꿰뚫고 있는 깊은 내공이 느껴졌고, 자연스레 신뢰와 존경심이 생겼다. 또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지부장님이 협회에 나오실 수 있는 날을 미리 공지해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협회에 가서 연습할 기회를 주셨고, 자세 하나하나를 세심히 지도해 주셨다.

또한, 바쁜 일정으로 협회에 못 나오는 회원들을 위해 생활차 내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주시며 동영상이라도 보면서 연습하라고 격려해주셨다.

3급 준사범을 준비하는 과정과 응시하는 과정은

“‘다선일여(茶禪一如)’라는 말처럼 차를 마시는 일은 마치 선을 수행하는 것과도 같으니 정갈한 마음가짐과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만 생각은 했지만, 그 예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우선 한복 준비도 쉽지 않았다. 한복을 찾기로 한 날 광주·전남은 폭우로 퇴근길이 마비되었고, 물난리가 나 물리적으로 내가 한복을 직접 찾으러 갈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한복을 못 찾고 출국을 해야 했고, 언니와 지인의 도움으로 한복을 겨우 받아 시험장에 설 수 있었다. 한복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었다. 한복을 입을 기회가 자주 없어서 옷고름도 못 매서 걱정이었다. 옷고름 매는 법을 유튜브를 보고 연습했지만 서툴렀다.

그래도 다행히 서울지부장님이 옷고름과 씨름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곱게 매만져 주신 덕분에 단정한 모습으로 응시할 수 있었다. 모두



의 도움으로 난 3급 준사범 시험을 끝냈다.

이제 2급 지도사범 과정 진학을 앞두고 차를 나 혼자 즐기는 것을 넘어, 차문화를 널리 알리고, 차가 주는 건강과 마음의 평온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

인성차예절지도사 3급 과정은 그 첫걸음이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걸으며, 차 한 잔에 담긴 예와 마음을 세상과 나누고자 다짐해 본다. ☺



수필집 「소화다리 아래 춤추는 노을」을 출간하며

글_전남지부 14기전문사법원우회 회장 선수원



오래전부터 차 생활을 해왔다. 그럼에도 이곳으로 와 살면서 보성군이 茶의 고장이라는 사실을 의식조차 하지 않았다.

이사를 온 한참 후에야 어느 날 문득 ‘아, 이곳 보성이 차의 고장이지.’ 했다. 오래된 옛 친구와 해후를 하듯 반가움에 마음이 들뜨고 몸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뜻이 있기에 그 길이 있다고 했던가. 별교의 차문화 모임에 인연이 닿아 본격적으로 차 공부를 시작했고 모임을 이끌어나갔다.

덕분에 낯설기만 했던 별교에 차츰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차와의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나는 기쁨을 느낀다.

이곳 별교는 내가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에세이스트」와 예기치 않은 만남은 나에게 천금 같은 기회를

가져다주면서 나의 생활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넓고 다양한 세상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이다. 자연히 내가 사는 거주지 별교도 나에게는 문학의 무한공간으로 다가왔다. 작가라니,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감히 엄두를 못 내던 일이다. 놀라운 변화다. 글쓰기는 가슴 벅찬 도전이며 뜻밖에도 새로운 여행이다. 무심하고 경직되어 있는 나의 성정에 큰 변화가 일었다.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서도 아주 먼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세상에, 자연에, 사람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고, 감성적 시선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열렸다. 자연을 글로 옮기고, 나 자신을, 나의 삶을 관조하며 내밀한 의식을 끄집어내 글로 표현하고자 한다.

글쓰기 과정만으로도 가슴 벅찬 희열과 뿌듯한 성취감을 맛본다. 어떤 문장가라도 죽기 전에 완전한 퇴고는 없다는 말을 위안 삼으며, 겁 없이 쓰고 있다.

이 한 권의 수필집이 누군가에게 잠시 쉼과 머무름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는데 혹시 시간 도둑이 될까 두렵기도 하다. ☹



항아리 차(茶)

글_경남지부 사범 조경숙(시. 수필 등단)



시간을 품은 항아리 속, 찻잎을 만나는 순간이다. 품 넓은 항아리 속에는 잘 건조된 찻잎들이 서로의 몸을 포개고 까만 얼굴을 내민다. 넉넉한 차의 속성을 온전히 품었는지 농익은 난초 향을 품어낸다. 다원 찻실, 몇 번을 손꼽아 버리며 나선 하동 길이다.

항아리 속 차는 여러 해 묵혀 느린 걸음으로 숙성의 과정을 거친 발효차다. 주인장은, 차는 사람을 알아본다며 한 번도 개봉하지 않은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차를 꺼낸다.

찻자리에서 만난 주인장 y는 대한민국 명장名匠 반열에 오른 차 명인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척박한 돌밭을 애지중지 가꾸어 차밭으로 일구고 녹차와 발효차 개발에 앞장선 분이다. 소탈한 농부의 모습이지만 차에 쏟는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그의 독심이 느껴진다. 어린잎을 따는 새봄 우전도 과감하게 발효차를 만드는 명장의 신념을 보며 우리나라 차의 미래가 탄실히 자리 잡았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인생도 처음에는 텅 빈 항아리와 같지 않았을까.

저마다 처한 삶의 면면마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 추억, 감정들을 채우며 여기까지 왔다. 무엇을 담을지는 순전히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은가. 술을 담으면 술 항아리요 물을 담으면 물항아리듯이 차를 담았으니 귀한 몸인 차 항아리가 되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듯 우리 인생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그 모습과 가치는 분명히 달라진다.

항아리는 겸손, 정화, 포용, 성숙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항아리에 차를 넣어 숙성시키는 과정은 시간의 힘과 기다림의 미학을 상징하는 것이라. 푸른 찻잎은 어둠 속에서 긴 기다림의 시간을 건너왔기에 씩씩함이 사라진 부드러움이 다른 찻잎과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창조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뽕뽕한 부분을 깎아 내고 세상과 더불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더욱 완숙해지는 우리들 인생 과정을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항아리에 담겨 익어가는 차처럼 나 또한 스스로 정화하고 겸손하며 나와 다른 것을 다독이는 성숙의 시간을 통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한다. ☹

품격을 배우는 시간, 인천뷰티예술고 인성예절교육

글_인천지부 전문사범 김은숙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도인성예절함양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내 커뮤니티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다. 이틀간 1학년 전체 4반에 2시간씩 열린 이번 교육은 실생활 속 예절 실습과 전통 다례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육은 주강사 1인과 보조강사 2인이 함께 맡아, 강의와 실습, 그리고 체험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첫 시간에는 우리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설명하고 한복을 바르게 입는 방법, 공수와 바른 자세, 뉘는 절 등을 설명하였다. “낯설고 신기한데 한복을 입고 있으니 자세



도 말도 조심스러워진다”라는 학생의 말처럼 단순히 설명으로 그치는 수업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둘째 시간에는 친구와 짝을 이루어 생활다례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고, 예를 갖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자세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다례가 끝난 후에는 자신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절을 정리하고 발표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예절이 단지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임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사회 진출이 빠른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예절 교육으로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수업에 참여한 강사로서 이번 교육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생들 삶의 한 부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뷰티예술고 학생들이 감성과 기술뿐 아니라 ‘품격’과 ‘태도’도 함께 갖춘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

‘달빛음악회’에서 찾자리 마련

글_인천지부 전문사범 마숙경



가천문화재단은 6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인천도호부관에서 ‘달빛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인천지부는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통다례체험 찾자리를 운영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달빛 아래 펼쳐지는 문화의 향연’을 주제로 진행된 본 공연은,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도심 한복판, 옛 관아 건물의 고즈넉한 마당에서 펼쳐진 찾자리는 전통의 멋과 차의 향기가 어우러져 마치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춘 듯한 고요하고 정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국 전통차를 음미하

며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찾자리를 찾은 관람객은 “공연도 좋았지만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더 기억에 남는다”라고 전하며 일상 속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전통문화와 차의 조화를 즐긴 시민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고즈넉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 특별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다례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일상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되살리는 시간이자,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소통과 공감의 자리였다. 공연의 시작 전 관람객들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집중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전체 행사에 깊이를 더했다.

앞으로도 인천지부는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한 활동을 통해 전통다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차 문화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차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전통을 오늘로 이어가는 일, 그 중심에서 인천지부는 늘 함께하는 자세로 걸음을 이어갈 것이다. ☺



閨房茶禮

규방다례

규방다례는 2002년 국내 최초로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로 지정되었다. 고 이귀례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을 초대 보유자로 지정하였으며, 2013년 2대 보유자로 최소연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이 지정되었다.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찾자리 참여

이길여 명예이사장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 초청

우리 협회 명예이사장이자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은 19일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가천재로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가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가천대 길병원과 이길여산부인과 기념관 등 재단 주요 시설을 견학한 뒤 가천재에 도착한 유학생들은 가천재 마당에 마련된 시원한 냉차와 전통다식을 맛보면서 찾자리를 즐기며, 우리나라 전통 한옥 건축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의미를 살린 가천재를 둘러보았다.

이길여 총장의 환영사와 함께 시작된 1부 행사에서는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 경연대회에 참가 하였던 초등학교 여학생 (문학초 4 이온유, 문학초 3 권주아, 인천화교중산소학교 3 이서희)들이

고운 색동 한복을 입고 생활다례 시연을 선보였다. 행사 준비 내내 오락가락했던 날씨는 다례 시연과 동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차분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다례를 선보였고, 이를 지켜보는 외국인 학생들은 무대 앞까지 나와 연신 카메라를 들이대며 한국 전통 차문화의 품격과 매력을 담기 바빴다.

이어 2부 만찬과 함께 국가별 전통공연과 함께 다양한 장기자랑이 선보였다. 찾자리에 참여했던 전승자들과 시연 연습에 고생했던 학생들도 외국인들에게 우리 전통 차문화를 대표하여 선보였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 시간을 함께 즐겼다. ㉞



서난경 지부장, 변명선 이사 규방다례 이수자 합격

규방다례 행다법 등 전 과정 심의

서난경 전남지부장과 변명선 이사가 지난 7월 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천시 무형유산 품류관에서 2025년 무형유산 규방다례 이수자 심의를 보았다. 인천시 무형유산 관계자 3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규방다례 행다 등 전 과정을 심의했다. 이수 심사는 규방다례의 전통과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자 하는 전승자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번 이수심사 대상

자는 한국차문화협회 서울제1지부 소속의 변명선 이사, 전남지부 서난경 지부장 등 두 명이였다. 이날 최소연 이사장과 차영민, 김가영, 강정자, 박광옥, 박숙희 부회장을 비롯하여 최지원 인천지부장, 강희옥 감사, 이금숙 이사, 이막동 이사, 류소영 이사, 이석예 이사 등이 함께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심의에 들어가기 전 규방다례 행다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었다.

또한 박광옥 전수교육사는 행다례 외 예상질문에 대한 대처 요령을 살폈다. 이번 심의에 손님으로 참석한 강의옥 감사, 이석예 이사, 류소영 이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두 사람이 행다례를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인천, 서울, 광주를 오고 가며 많은 이들의 응원과 최선을 다해 준비한 이들의 노력으로 8월 20일자로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이수심사 합격을 통보받았다.

전승자들 간의 교류와 격려가 함께 하였던 이번 심사는 규방다례의 보급과 전승의 의미를 더욱 깊게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으며, 이로써 인천무형유산 규방다례는 보유자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최미리, 박광옥 2명의 전승교육사와 이수자 36명, 전수장학생 2명으로 더욱 탄탄한 전승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최소연 이사장 한복세계화재단 조찬회 참석

한복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에 노력하기로 다짐

제1차 한복세계화포럼이 지난 1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했다. ‘한복세계화포럼’은 대한민국 대표적 문화상징이자 생활 속 한복의 전통성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한복 입기를 확산하여 한복 문화와 한복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2025년 결성된 민간단체이다.

최소연 이사장은 지난 7월 28일 한복세계화재단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복의 세계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우리 협회는 지난 2013년 2월 15일 ‘대한민국 최다인원 전통한복 입고 다례교육’이란 타이틀로 대한민국 기네스 인증서를 받은 단체로 그 의미가 크다.

우리 협회는 생활다례를 비롯하여 선비다례, 규방다례 행다를 할 때는 전통한복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행사에도 한복을 입는다. 이런 협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국세계화포럼의 조효숙 가천대 석좌교수의 요청과 이길여 가천대 총장의 권유로 ‘한복세계화재단’에 참여하기로 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한복을 사랑하는 모든 분과 함께 정부의 한복진흥정책에 부응하여 오랜 전통을 이어온 한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미력하나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2030 한복생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제1차 학술 심포지엄에 최소연 이사장과 차영민, 박광옥 부회장 참석

한복세계화재단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한복생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심포지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29일(금) 오후 1시부터 서소문성지 역사 박물관 명례방에서 개최했다.

학술 심포지엄에는 (사)한국차문화협회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차영민, 박광옥 부회장이 함께 했다. 한복세계화재단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상징이자 생활양식인 한복의 전통성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생활 속에서 한복입기를 확산하여 한복문화와 한복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2023년 한복세계화포럼으로 시작한 순수 민간단체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학술 심포지엄에는 정순훈 한복세계화재단 이사장(몽골 후레대학교 총장), 구혜자 국가무형유산 침선장, 조효숙 가천대 석좌교수, 이형호 한복생활 유네스코 등재추진단 부단장, 김종규 (사)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이자 한국차문화협회 고문 등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종사자 및 전문가, 일반인이 참가했다.

최소연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은 “협회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한복 사랑에 진심이셨고, 평생동안 한복 사랑을 실천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유지를 따라 저 또한 한복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 3만 여 회원도 한복입기를 생활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한복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3급 필기 및 실기 심의

100년만의 폭우도 심의를 막지 못했다

지난 7월 19일 협회 교육장에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과 3급 필기 및 실기 심의가 열렸다. 100년 만의 폭우로 인해 남부지방의 비 피해가 심각해서 회원들의 참여가 불투명했지만, 지부장 이하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필기와 실기 심의를 무사히 마쳤다.



이번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필기와 실기 심의는 100년 만의 폭우로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전남지부 필기 및 실기 심의 대상자 4명 중 3명이 결석하여 7월 29일 별도의 필기와 실기 심의를 받게 되었다. 4명 중 1명은 전날 자동차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실기 심의에 앞서 최소연 인사장은 “예상치 못한 폭우가 연일 내리고 있어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필기 및 실기 심의를 위해 협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것을 배우려는 회원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의 차문화가 더욱 성장하는 것입니다. 각 지부에서 열심히 배웠으리라 믿습니다. 조금 어색하고 생소한 환경이라 긴장하고 떨리겠지만, 연습한 대로 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민달래 팀장의 소개로 심의위원 소개가 있었다. 규방다례 2급 심의위원으로는 최소연 규방다례



보유자, 박광옥 규방다례 전승교육사가 맡았다. 생활다례 실기 심의위원으로 차영민 이수자, 김가영 이수자, 강정자 이수자가 심의를 맡았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필기 및 실기 심의에는 각 지부의 지부장과 회원 등이 심의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서울제1지부 이기분 지부장, 인천지부 최지원 지부장, 이림 전북지부장, 김미숙 강원지부장,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 황미경 경남지부장을 비롯하여 강의옥 감사, 이금숙 이사, 변명선 이사, 신연서 이사, 최점순 이사, 문차남 이사, 류소영 이사, 최성미 규방다례 장학생, 최진숙 전문사범 등이 도움을 주었다. 3급 필기 및 실기 심의에는 이은실 외 9명, 2급 필기 및 실기 심의에는 임현섭 외 11명이 실기 및 심의를 보았다. 필기 및 실기 심의 대상자들은 평소 배운대로 필기 및 실기 심의에 임한다고 하였지만 자주 실수를 하는 등 긴장감이 높았다고 입을 모았다. 필기 및 실기 심의 대상자들은 “필기 및 실기 심의를 보면서 우리 차문화를 더욱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한송정 (寒松亭)

차 문화의 발상지로 알려진 강원 강릉엔 寒松亭이 있다.

동문선과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따르면,
한송정이 있던 자리 곁에 茶泉, 石竈, 石臼 등이 있었는데
이를 화랑의 茶道遺蹟이라 하였고,
또 이 유적지를 가리켜 述郎仙人이라 하였다.

신라 진흥왕때 4명의 화랑, 永郎, 述郎, 南郎, 安祥 등 화랑도들이 명산 대첩을 순례하면서 심신을 수련하며 차를 마셨던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화랑들이 유람하며 차를 끓여 마셨다고 알려진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차 유적지다. 또 고려시대 이후 詩文에도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당시에도 퇴락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먼중 때의 문신인 老峰金克己(1148~1209) 茶事의 達人으로 노봉의 詩 에서도 이미 “돌 아궁이는 내뿜굴어 이끼가 끼었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송정에서 연회도 많았다고 전한다. 이풍경을 보면 한송정의 모습을 그린 듯 한 느낌이다. ❶



담원 김창배 | 문화예술학 박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국내외 개인전 50여회, 대한민국미술상 수상, 차 한 잔의 인연, 동다송, 다신전 등 22권 출간.

차와 회화 차문화에 대하여 조선의 차 그림 연구 등 논문 4편, 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재직.

담원 김창배 선생은 초의와 범해의 혼도를 읽고 그들의 다맥(茶脈)을 이은 “금명보정(錦溟寶鼎)”을 연구하여 지난 2월 23일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문화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 錦溟寶鼎의 禪 사상과 茶詩에 대한 研究』 <http://www.damwongallery.artko.kr>

차를 나누는 사람들

지부 사랑방 (가나다 순)

강원지부 · 경남지부 · 광주지부 · 교토지부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 서울제2지부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충북지부



강원지부

“제3회 선다문화축제” 주관 진행

고려 선다(禪茶)의 맥을 오늘에 되살려



지부장 김미숙

지난 6월 14일, 춘천 청평사에서 열린 제3회 선다 문화축제가 ‘고려의 숨결을 담다’라는 주제로 강원 지부에서는 3회째 김미숙 지부장 총괄 기획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천년 고찰의 고즈넉한 풍광 속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불교의 전통과 한국 차문화가 어우러진 뜻깊은 자리로, 많은 사부대중과 시민, 관광객들이 함께했습니다.

1부 대웅전에서는 허응당 보우선사, 설잠 김시습, 진락공 이자현을 선양하는 추모 헌다례제를 범고와 육법공양 의례를 시작으로, 승무, 화청, 강원지부 특히 회원들의 다선일미(茶禪一味)시연, 獻詩 낭독 등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대중에게 공양을 바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막되었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녹차·황차·보이차·가루차 등 다양

한 차를 맛보는 차 체험, 차 명상 체험, 어린이, 가족들에게 우리의 전통다례를 함께 체험해보는 인성차예절 체험이 펼쳐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차 명상과 전통 다례 시연을 통해 차 한 잔 속에 깃든 고요와 화합의 정신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통 체험을 넘어, 고려 선다(禪茶)의 맥을 오늘에 되살리고 서로 다른 이들이 한마음으로 이어지는 문화적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청평사와 함께하는 선다문화축제는 앞으로 한국 차문화의 보급과 아름다움 차와 인성을 널리 알리고, 선(禪)과 다(茶)가 주는 깊은 울림을 전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글.강원지부 사범교육생 박복순



경남지부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7기 종강식

자격검정 심의를 통해 성장



지부장 황미경

긴긴 사범반 과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개인 사정으로 1년을 쉬다 보니 종강식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

사범반 종강식에는 <한국의 차문화사>와 71기 교재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동안 개강, 생활다례, 차음식 (정과 만들기) 제다실습, 한국의 차문화,

규방다례, 차의 날 전국차인큰잔치, 차의 고전(다경)까지 바쁘게 달려왔다.

종강 후에도 자격검정 준비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생활다례, 선비다례, 규방다례 연습을 계속하고 자격검정까지 보았다. 심의를 받고 보니 매번 지부장이 먼 길 동행하시고 연습 챙겨주시느라 고생하심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선배님들의 수고를 마음속 깊이 느끼며 이 길을 먼저 걸으신 선배님들과 교육부장님 지부장님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글.68기 정환숙



차문화 교육과 봉사

다례와 웃음치료 접목

관심만 가지던 차생활에 입문하여 71기 사범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십자 활동과 웃음 치료사 활동을 하던 중 선배 사범의 권유를 받고 경남 지부에 등록하였습니다. 1학기 동안 교육을 받다 보니 참 유용하고 평소 관심 가지던 분야라 즐겁게 보냈습니다. 어느덧 봄학기 종강식을 하고 보니 다음 학기도 기다려 집니다.

다례는 차를 마시는 예절이자 수행 방식으로, 단순

한 음용을 넘어 심신을 가다듬고 인격을 수양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웃음치료(Laughter Therapy)는 인위적인 웃음을 유도하여 실제 웃음처럼 신체와 정서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치료적 활동인데 여기에 다례를 접목한다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새내기지만 제대로 배워 이런 고급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글.71기 사범반 이수정



광 주 지 부

차인들의 품격 있는 모임, ‘품다회’

세상을 품는 모임의 시작

2025년 7월 26일, 한국차문화협회 광주지부는 광주지부장님을 비롯하여 선후배 회원님들과 함께 뜻깊은 모임을 했다.

점심 식사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이어 김보련 전문사범이 운영하는 마인디심리상담 & 치유센터에서 진행된 2차 모임을 했는데 박점희 사범께서 특별한 차를 준비해주었다. 먼저 정성껏 우려낸 금실금아차를 내어주시며 차의 깊은 향과 맛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대엽종 백차와 우롱차가 순서대로 차례차례 제공되어 다양한 차의 풍미를 경험하며 차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더욱 느낄 수 있었다.

모임의 시작은 교육생대표 69기 이정성 선생께서 “우리 한번 모이자.”라며 모임을 주선하였고 이것



이 마중물이 되어 두 번째 모임이 성사되었는데 식사와 차가 어우러지고 차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더해져 단순한 차 모임을 넘어 차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모임에 대한 의미와 가치, 지역 차문화 활성화를 위한 깊이 있는 차담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제안이 나왔는데 광주지부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차를 나누고, 차인의 품격과 정신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도 따뜻한 차문화를 전하는 모임을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뜻을 모아 탄생한 모임이 바로 ‘품다회(品茶會)’이다.

‘품다회’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차를 음미하는 ‘품다(品茶)’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 세상을 따뜻하게 ‘품는’ 마음이다. 작지만 깊이 있는 한 잔의 차에서 시작된 ‘품다’는 광주지부의 품격을 지키고, 차문화의 가치를 넓혀가는 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광주지부가 더욱 살아 숨 쉬는 공동체로 성장해가길 기대한다.

글.전문사범 민선미



지부장 박혜란

교 토 지 부

일본 국제학원 고등학생 3학년, 2학년 다례 수업 진행

일본에 우리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다

교토지부는 올해 인터네셔널 스쿨인 교토국제학원 중고등학생 총 120명에 대한 한국 차문화 과외 수업을 맡게 되었다. 교토국제학원은 일본 교교야구에 있어서 이름난 명문교로 인정받고 있는바 올해도 고시엔구장에서 결승을 향하여 승승장구 중이다.



지부장 조화미

5월 10일 고등학교 3학년, 6월 21일 고등학교 2학년, 각 30명부터 25명 단위로 생활다례 체험과 수업을 진행했다. 2인 1조로 다구를 사용하고 일본 다도와 한국의 차문화를 처음 접하게 되어 무척 재미있고, 즐거웠다고 학생들은 소감을 말했다. 대한민국의 고유 의상인 Hanbok을 입고 한국의 다기



로 한국의 녹차와 다과를 먹었으니 둘도 없는 추억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이 학교는 모국어 교육을 비롯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열심히 해왔고 지금도 그 목적으로 과외수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으며 여기에서 다례수업을 우리 한국차문화협회 교토지부에 맡겨주었다니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으로 인하여 뿌리는 한국인이지만 국적이 일본인이



70 프로에 달한다고 한다. 지도하는 교토지부 회원들도 일본인 한국인이 반반이 섞인 단체이며 한국전통문화를 매개로 어울리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면서 우정을 깊이 나누고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문화가 가지는 무한한 가능성과 힘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후반기는 고등학교 1학년생과 중학생 수업이 예정되어 있다. 새롭게 만날 젊은 친구들과의 만남에 가슴 설렌다.



대구경북제1지부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시험과 심의

공부를 통해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되다



지부장 박경숙

지부장님을 모시고 동대구역에서 서울 한국차문화협회 가는 ktx를 탔다. 올라가는 동안 책을 한번 훑어봤다. 책을 읽었는데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배운 대로 정리를 해보았다. 시험은 고생스럽지만, 분명하게 정보를 입력할 기회다. 아는 것도 문제는 어렵게 느껴진다. 폭우로 인하여 철도가 무너졌는지, 기차가 지연되면서 시간이 좀 늦은 것 같다. 서울에 도착하니 시험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문제지를 들었다. 조

금씩 생각이 난다. 필기시험이 끝나고 규방다례와 선비다례 심의가 있었다. 행다 심의를 보고 나니 정리가 되면서 이래서 시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구경북제1지부 지도사범 2급 심의 2명. 함께 간 동기 성우용 선생님과 박경숙 지부장님 셋이서 서울역사를 왔다 갔다 하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구경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언가 홀가분 하지만 뿌듯한 시간이었다. 차와 인연이 되어 함께 하는 시간이 보람 있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글_지도사범 교육생 최수연



서울제1지부

서울제1지부 종강식

외부 강사를 초빙 특강으로 진행



지부장 이기분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 서울제1지부는 차향이 가득한 가운데 종강식을 마쳤다. 차영민 부회장과 이사님들이 함께 했다. 또한 차를 알기 위해 사범들께서 새로이 관심을 보이는 예비차인을 모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새롭게 3급을 공부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교육생들과 3급, 2급 시험을 남겨둔 채 설렘과 호기심을 보이는 회원님들도 참석했다. 이기분 지부장은 종강식 인사말로 고 김옥희 지부장님 이야기를 인용했다. 김옥희 전 지부장은 “평소 차로 만난 인연 건강해야 자주 뵙습니다. 차가 내어준 인연 깊이 간직해 주길 바라다.”라고 했다. 이번 종강식에는 이기분 지부장소개로 성균관대 송우 한용화 교수님의 ‘보이차 바로 알기’ 특강이 있었다.

참여한 분들에게 이벤트로 귀한 청병 1편과 숙병 1편 선물로 이은영 전문사범과 차영민 부회장님께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다. 차를 기증해 주셔서 종강식 이후 서울제1지부사범회를 하며 품평을 해보며 마셔 보았으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글_지부장 이기분



서울 제2지부

차와 다식,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상반기 교육 종강 수업 이야기



지부장 박광옥

올해 상반기의 마지막 차문화 교육은 유난히 따뜻하고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수업 주제는 '다식 만들기'. 사군자와 길상 문양을 본뜬 목판에 반죽을 꼭 눌러 찍어내면, 계절의 색과 향을 머금은 다식이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이번 수업에서는 흑임자·쭈·치자·백년초를 이용해 오방색을 구현했고, 이는 단순한 색감 이상의 상징성을 지녔다. 오방색은 우리 전통에서 건강과 길상(吉祥)을 뜻하며, 차와 곁들일 때 그 의미가 한층 깊어진다.

수업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기울였다. 그중에는 곧 해외로 떠나는 교육생도 있었다. 그는 "멀리서도 한국의 차와 다식을 전하고 싶다"라며 손끝으로 반죽을 다듬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알의 씨앗을 심는 원예가처럼 진지했다. 이번 실습은 그에게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한국의 멋과 맛을 전하는 '문화 사절단'으로서의 준비 과정이었다.

다식은 길보기에는 소박하지만, 만드는 이의 마음과 손길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음식이다. 차 온도와 향이 맞아야 비로소 제빛을 발한다.

우리는 이날, 녹차의 은은한 떼움과 쭈 다식의 봄

내음, 흑임자의 고소함이 어우러지는 완벽한 조화를 맛보았다.

상반기 교육을 마무리하며, 나는 다시 한번 느낀다. 차와 다식은 단순한 전통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라는 것을. 해외로 나가는 한 교육생이 가져갈 그 작은 다식 몇 점이, 낯선 땅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지도 모른다. 그것이야말로 차와 다식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

다음 학기에도 우리는 다시 모여, 계절을 담은 차잔을 돌리고 손끝의 정성을 다식에 새길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전통은 또 한 번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글_전문사범 허유진



아산지부

천안 광덕산 이문정으로 야외수업

자연을 벗 삼아 차로 여름을 나다



지부장 김태임

아산지부는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광덕산 이문정으로 회원들과 함께 야외수업을 다녀왔다. 광덕산은 역사와 자연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천안의 명소로 공기도 맑고 사방이 녹음으로 우거져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았다. 다도반 회장님이 찌른 쭈떡이 차맛을 높여주었다. 자연 속에서 차를 마시며 하는 차공부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이번 야외수업이 가을 야외수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초등학생 38명 외암리 다도체험

차와 예절을 통해 인성교육

무더운 더위 속에서 서울에서 초등학생 38명이 다도체험을 신청했다. 다도체험은 더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울에서 선생님들의 인솔 아래 외암리 다도체험장



에 9시 50분에 도착했다. 오전엔 예절과 다도 체험
오후에 마을 답사로 하루를 알차게 보냈다. 새벽부
터 오느라고 힘들었을 텐데도 학생들은 선생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체험이 학생들에게 차
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차문화에 관심을 두고 차를
마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온양향교 하계 예절교육

초·중학생 50여 명 대상



여기저기에서 “차를 더 주세요.”라고 말했다. 더위
를 잊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없이 자랑스
럽고 가르치는 내내 보람찼다.

아산지부는 해마다 향교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
로 충·효·예 교실을 열고 있다. 이번에도 아산지부
에서 유림회관 3층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효·예 교실을 실시했다.

어느 때보다 폭염으로 힘들 때 초·중학생 50여 명
은 2개 팀으로 나눠 예절교육을 진행했다. 더운 날
씨에도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더없이 기특하고 예
뻐 보였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냉차를 제공하자

폭염 속에 아산지부 종강식

가을 차문화 탐방 등 의견 교환

폭염과 폭우로 인해 아산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
가지로 큰 피해를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
지부는 종강식을 했다. 회원들은 이번 폭염과 폭
우에도 모두 무탈해서 다행이다. 종강식에는 사범
들이 콩국수로 점심, 교육생이 떡과 다과를 준비했



다. 날씨가 더워 시원한 냉차와 연잎차로 한 학기
를 되돌아보며 다담을 나눈 즐거운 시간이었다. 가
을학기에는 좀 더 내실 있는 교육과 가을 차문화 탐방
을 해보자는 의견으로 종강식을 마무리했다.

15년 동안 무료 차시음 및 예절교육

전국의 차인뿐 아니라 외국에게도 교육

아산지부는 지난 15년 동안 외암리 무료 차시음 및
예절교육을 실시했다. 전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도 우리 차를 배우려고 오는 분들 많다. 차를 많이
알고 있는 차인도 있고, 차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다. 다양한 분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그들과 소통
하고 차를 가르치는 일에 보람도 느끼지만, 한편으
로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이번 여



름도 차시음 및 예절교육을 받으신들 때문에 여
름이 알차고 보람되었다.

인천지부

인천 신명여고 생활다레 수업 진행

시험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위로의 시간 되다



지부장 최지원

2025년 7월 인천지부 사범 지도로 신명여고 생활다레 수업을 진행했다. 일주일 동안 1학년과 2학년 22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생활다레 수업은 사범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협조로 성공리에 진행되었다.

수업을 위해 인천지부 전문사범 과정의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한 이번 수업은 실습 위주로 진행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인천지부는 매년 신명여고에서 다레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명여고 다레수업은 일반 교실이 아닌 예절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절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다레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이 새삼

대견스러웠다. 다식과 함께 차를 마시는 다담 시간에는 학생들의 밝은 미소가 상큼하기 그지없었다. 시험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힐링 시간을 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글_전문사범 이윤희



차발 체험을 통해 하나 된 인천지부

하반기에도 차향 가득한 인천지부가 되길 바란다

올해 상반기 인천지부에서는 차 향기 가득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둘러앉아 나눈 정겨운 차 한잔은 선 후배 간의 우애를 깊게 했고, 보성의 푸른 차밭으로 떠난 차발 체험 활동에서는 차잎을 직접 따고 덪으며 차의 가치를 몸소 느끼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땀방울 속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현장, 그리고 한줄 한줄 정성스레 차잎을 비비던 손길이 오래

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마지막 종강식에서는 '홍차'를 중심으로 차의 맛을 체득하는 뜻깊은 다도의 정신처럼, 서로 아끼는 마음이 한자리에 모여 배움도, 우정도, 따스한 차 향기처럼 은은하게 이어졌다.

2025년 하반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

글_제70기 교육생 박하숙



전 남 지 부

인성차문화 예절지도사 과정 종강식

광주 전통문화관에서 규방다례 시연



지부장 서난경

전남지부는 지난 7월 12일 광주 전통문화관에서 2025년도 1학기 인성차문화 예절지도사 과정 종강식을 회원 및 졸업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가졌다.

이번 종강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부는 규방다례 시연, 2부는 무아차회로 진행했다. 1부 규방다례 시연은 주인 서난경 지부장, 돕는이 정경미 교육생, 큰손님 이정희 이사, 둘째 손님 박숙희 전문사범, 셋째 손님 박선희 전문사범, 나레이션 나혜영 전문사범이 참여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2부 무아차회는 이정희 이사의 차명상 지도로 이루어졌는데 일상에 지친 자신을 위로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날 종강식에는 지난 차음식 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은 류석진 지도사범이 떡 케이크를 준비해와 모두가 커팅식을 하며 종강식 내내 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한편 이날 종강식에 앞서 오전에는 생활다례와 선비다례 연습이었는데 참석한 김홍길 지도사범 교육생(가나안 요양원 원장)은 “회원들 간에 협력이 좋아 나와 내가 구분 없이 하나가 되고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부를 위하니 전남지부가 앞으로 이 에너지를 발판으로 무궁한 발전을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글_지도사범 교육생 윤선웅



목포 제일로 유치원에서 교직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 행다법을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우다

전남지부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4일 양일간 목포 제일로 유치원에서 교직원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시행했다.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직무연수에서는 인성 8 덕목과 생활차 행다법을 통해 유치원생들에게 차를 쉽게 접하게 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찾자리 연출에 필요한 다화 꽃꽂이도 가르쳤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고경희 원장은 차를 우리는 행다법에 “예가 있고, 협동, 배려, 책임, 존중, 정직, 효가 있으며 특히 소통하는 방법으로 차를 나누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이를 원생들에게 알려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차문화 보급



에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또 다화 시간에 참석한 이언더기 선생님은 “앞으로는 길가에 야생화 한 그루라도 사람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음을 아이들에게 알려 주겠다”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한편, 이번 직무연수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차문화를 이해하고 인성교육에 앞장서겠으며 기회가 되면 연수를 지속해서 받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글_이사 김경자

전남지부 국제 차 & 티푸드 박람회 참여

녹차, 가루차 행다 체험 도와

광주 국제 차 & 티푸드 박람회가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150여 개 관

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4일간 펼쳐졌다. 전남지부는 전통차 찾자리, 생활다례 행다, 가루차 행다 체험

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큰 호평 받았다.
지도에 나선 박숙희, 박선희 전문사범은 교육생들
에게 평상시의 차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박
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차를 직접 접하는 데 보탬이
된 것 같아 보람차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람회장 찾은 서명주 이사는 “늘 단합된 전
남지부 회원들의 모습은 아름답고 협회의 든든한
기둥이다.”라고 격려하시고 “(사)한국차문화협회의
위상을 드높였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정주 지도사범 교육생(땅
끝차회 회장)은 “언제나 느끼지만, 전남지부의 나눔
의 정신과 단합은 최고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해

남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회원 간 친목을 다지는데 초석이 되겠다”라고 포부
를 밝혔다.

글_지도사범교육생(2025년 재무) 전미란



‘녹차 품은 강정’과 ‘녹차 품은 오란다’를 만들다 하계연수회 때 전국 차인께 제공

전남지부는 지난 6월 29일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에서 퓨전 다식 만들기 수업으로 오란다를 만들었
다.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업은 이승희
명인(2급 지도사범 교육생)의 깜짝 레시피에 서남
경 지부장의 녹차를 이용한 오란다를 선보여 또 다
른 차음식을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 수업에 참석한 박성혜(준사범)은 “나누고, 챙

기고, 술선수범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2급 지도
사범 진학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전남지부
회원들은 8월 15일 ‘해남에 다녀왔습니다’에 모여
8월 23~24일에 열리는 하계연수 때 ‘녹차 품은 강
정’과 ‘녹차 품은 오란다’를 만들어 가져가 전국 회
원들에게 나눔 행사를 할 예정이다.

글_2급 지도사범 교육생 강귀순

전 북 지 부

남원다레원 개원식 한국 차문화의 성장과 전파에 노력

지난 6월 27일 전북지부 남원다레원 개원식이 있
었다.
남원 출신 1급전문사범인 정다교 사범이 다레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수업을 함께 할 수강생들
과 함께 기초반 개강식을 겸하여 개원식이 진행되
었다.
이림 전북지부장과 박영심 수석부회장, 전서령 사
무국장을 비롯하여 남원지회 박점복 사범, 이영숙
익산중부지회장과 전문사범이신 최병이 다레강
사, 이성자 익산지회장이 멀리에서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다. 박영심 부회장의 사회로 식이 진행되
었으며, 양옥임 전문사범이 생활다레 시연을 해주
셨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이림 지부장께 감



사드립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차문화를 함
게 할 수 있는 분들과 만남이 하늘이 준 선물로 여
겨집니다. 응원해주시는 마음 잘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차를 즐기고 소통하
면서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해 가면서 더불어 성장
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레원을 열게 되었습니
다. 함께 가요 우리!”

정다교 다레원장의 말이다. 남원다레원이 지역을
넘어 한국 차문화의 성장과 전파에 일익을 담당하
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지부장 이 림

차향 가득한 한옥 남원 예루원에서 다도예절

남원시민과 관광객 대상으로 진행

남원다례원은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남원 광한루원에 있는 예루원에서 차향 가득 한옥에서 “한복 입고 다도예절 배우기”와 “얼씨구~ 좋다!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화인당 주관으로 진행했다.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에는 관내 어린이집 10개소의 신청을 받아서

다도예절과 전통놀이 무료체험으로 신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남원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차를 대접하고 다도예절과 전통놀이를 즐겼다.

글_전문사범 정다교(인숙)

마음을 다독이는 힐링 다도수업

대학생과 일반인 20여 명 4주간 실시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창업경영금융학과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청이 지원하는 다도수업이 대학생 및 일반인 등 20여 명이 참여하여 여름방학 동안 저녁 7시~10시 4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림 전북지부장의 직강으로 6대 다류를 고루 소개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가 이루어졌다.

1차시에는 녹차와 가루차를 직접 우려 마시고 ‘내 마음은 지금 무슨 빛일까? 사유해보기, 2차시에

는 황차와 홍차 티 테이블에서의 행다법, 3차시에는 백차와 청차로 개완 행다법을 익히고, 마지막 4차시에는 자사호를 사용하여 흑차와 보이차를 마시며 ‘시간의 깊이만큼 우리도 익어갈까’라는 주제로 자기의 마음자리 살펴보기를 하며, 차를 마시며 차에 대한 궁금증들을 묻고 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했다.

충북지부

차인큰잔치에서 충북지부 기량을 내보이다

차음식경연대회에 8명 수상



지부장 박숙희

6월 14일 차인큰잔치 참석하는 날. 우리 지부는 몇 번의 회합으로 준비한 차음식경연대회 출품작 11점, 다화 2점, 찻자리 준비로 새벽부터 분주했다. 준비된 버스로 천안에 들러 아산지부 회원들과 합세하여 행사장인 가천대에 도착했다.

우수상인 한국소비자연합회장상을 수상한 김경빈

회원, 장려상을 수상한 김선경 사범, 가작상을 수상한 김희민 사범과 입선한 여덟 분의 수상을 거듭 축하하며, 우리 지부의 발전을 기원하며 귀가하였다.

차인의 즐거움을 만끽한 하루였다.



1학기 사범교육반 즐거운 종강식

다음 학기 기약

우리 지부 사범교육반은 2025년 1학기 7월 20일 종강식을 했다.

우리 교육장 효동원(孝東院)에 모여 하계연수 준비를 하며, 지부장님과 1학기의 정담을 나누며 다음 학기 만남을 기약했다.



우리 지부 사범회 1학기 마무리 모임 갖다

배려를 통해 우의를 다지다

7월 21일 효동원에서 1학기를 마무리하는 모임을 했다. 더위를 피하고자 8월 모임은 하계연수로 대체하기로 했다. 오늘은 김영희 이사의 지도로 '오디청, 오디에이드'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 사범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만나 서로 강사가 되어 나눔을 즐기는 모임이다. 허윤숙 총무부장은 한 학기 동안 고마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서로 배려하고 아끼며 우의를 다지는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대표로 말했다.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3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11명)



2급-제25-1149호
박O유



2급-제25-1150호
윤O현



2급-제25-1151호
임O섭



2급-제25-1152호
정O숙



2급-제25-1153호
성O용



2급-제25-1154호
최O연

3급 자격취득자



2급-제25-1155호
고O나



2급-제25-1156호
박O우



2급-제25-1157호
이O윤



2급-제25-1158호
정O미



2급-제25-1159호
이O서



3급-제25-1076호
변O민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취득자(13명)



3급-제25-1077호
변O석



3급-제25-1078호
손O옥



3급-제25-1079호
이O림



3급-제25-1080호
전O복



3급-제25-1081호
전O이



3급-제25-1082호
김O영



3급-제25-1083호
김O태



3급-제25-1084호
박O혜



3급-제25-1085호
이O라



3급-제25-1086호
최O희



3급-제25-1087호
이O실



3급-제25-1088호
하O덕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1명)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1	강원	박○유	2급-제25-138호
2	강원	윤○현	2급-제25-139호
3	경남	임○섭	2급-제25-140호
4	경남	정○숙	2급-제25-141호
5	대구경북제1	성○용	2급-제25-142호
6	대구경북제1	최○연	2급-제25-143호
7	서울제1	고○나	2급-제25-144호
8	서울제2	박○우	2급-제25-145호
9	인천	이○윤	2급-제25-146호
10	전남	정○미	2급-제25-147호
11	전북	이○서	2급-제25-148호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2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11명)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1	강원	박○유	2급-제25-138호
2	강원	윤○현	2급-제25-139호
3	경남	임○섭	2급-제25-140호
4	경남	정○숙	2급-제25-141호
5	대구경북제1	성○용	2급-제25-142호
6	대구경북제1	최○연	2급-제25-143호
7	서울제1	고○나	2급-제25-144호
8	서울제2	박○우	2급-제25-145호
9	인천	이○윤	2급-제25-146호
10	전남	정○미	2급-제25-147호
11	전북	이○서	2급-제25-148호

• 인성교육예절지도사 3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13명)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1	강원	변○민	3급-제25-1076호	8	서울제1	김○태	3급-제25-1083호
2	강원	변○석	3급-제25-1077호	9	전남	박○혜	3급-제25-1084호
3	강원	손○옥	3급-제25-1078호	10	전남	이○라	3급-제25-1085호
4	강원	이○림	3급-제25-1079호	11	전남	최○희	3급-제25-1086호
5	강원	전○복	3급-제25-1080호	12	전북	이○실	3급-제25-1087호
6	강원	전○이	3급-제25-1081호	13	전북	하○덕	3급-제25-1088호
7	서울제1	김○영	3급-제25-1082호				

알립니다

경수연 진헌다례 현금 찬조금 내역

이혜자 이수자 · 300,000원

강정자 이수자 · 200,000원

연규남 이수자 · 1,000,000원

조정미 이수자 · 300,000원

박경숙 이수자(대구) · 300,000원

규방다례직급자 일동 · 1,200,000원

경수연 진헌다례 지출 내역

한복+가채 3,100,000원

가루차 540,000원

약사 1,200,000원

차인들의
향기 넘치는 이야기,
'차문화'에
담고자 합니다

〈차문화〉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활 속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논문 등 종류에
관계없이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차문화지는 무가지로 발행되며 발송료는
연 1회, 1만 원입니다.
회원은 각 지부에 신청부탁드립니다.

정기 우수료 10,000원(1년)

국민은행 827-25-0015-983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보내주실 곳

(사)한국차문화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우)04012
Tel : 02-719-7816~7
Fax : 02-719-7815
이메일 : koreatea1991@naver.com

여러분의 관심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 정관 제4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5년 6월~ 2025년 8월 본 협회에
기부 된 내역과 협찬물품을 공개합니다.

협회 발전 찬조금

이사장 · 최소연 (9,300,000원)

회원 · 김지아 (300,000)

기타 · 정건영 (300,000)

특별회비(임원)

이사 · 유미현 (1,000,000원)

이사 · 최정희 (1,000,000원)

이사 · 변명선 (1,000,000원)

특별회비(지회장)

익산지회장 · 이성자 (200,000원)

특별회비(사범) (30,000원)

강원지부 · 박선유, 윤석현

경남지부 · 조경자, 박영미, 안선희, 박은화, 이미숙, 김둘자, 이영애, 안순덕, 정태수,
안영선, 주영희, 김경희, 이숙련, 정연상, 정재윤, 이서영, 임현섭, 정환숙

대구경북제1지부 · 성우용, 최수연

서울제1지부 · 고유나

부산지부 · 이은숙, 이정옥, 윤명희, 김선희, 최경화

서울제2지부 · 박제우

순천지부 · 이강자, 김여옥, 안화자, 박혜숙, 박순자, 나원희, 이미란, 조혜숙, 주혜란

인천지부 · 이서윤, 남미선, 김태전, 박명모

전남지부 · 정경미

전북지부 · 이난희, 김재선, 정미영, 김기순, 김은순, 이영서, 광항미

충북지부 · 윤기순, 전인숙, 김은희, 김동례, 정운경, 이정애, 한영선, 권정희, 박미경,
이병숙, 임미희, 김선경, 정미영, 전근화, 서지연, 허윤숙, 김미정, 신승연,
오정연, 이주연, 강유주, 이원균, 허인영, 윤지선

한국차문화협회 차문화지 2025년 6월~ 2025년 8월 우수료 납부자 명단

6월 통장 입금

경남 · 유미현 / 부산 · 이정옥, 이은숙, 윤명희, 김선희, 최경화 / 전북 · 김기순, 김은순, 김재
선, 이난희, 정미영 / 충북 · 임미희, 김동례, 허윤숙, 전근화, 김선경, 전인숙, 정운경, 신승연,
오정연, 이병숙, 윤기순, 한영선, 이정애, 김미정, 김은희, 권정희, 박미경, 서지연

7월 통장 입금

경남 · 김경희, 이숙련, 황미경, 하 식, 이서영, 안영선, 주영희, 정연상, 조경자, 안순덕, 이미
숙, 김둘자, 이영애, 정재윤, 안선희, 박영미, 박은화, 정태수, 강정자, 조희옥

8월 통장 입금

강원 · 윤석현, 박선유 / 경남 · 임현섭, 정환숙 / 대구경북제1 · 성우용, 최수연 / 서울제1 · 고
유나 / 서울제2 · 박제우 / 순천 · 이미란, 주혜란, 나원희, 조혜숙, 박순자, 안화자, 박혜숙, 이
강자, 김여옥 / 인천 · 이서윤, 박명모, 남미선, 김태전 / 전남 · 정경미 / 전북 · 이영서, 광항미 /
충북 · 이원균, 허인영, 강유주, 이주연

전통수제차의 명가 햇차원이 만듭니다.



수상내역

2001 경상남도 우수벤처 농업상 수상

2003 "햇차원"으로 사명변경

2005 ISO 9001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2007 유기농 인증획득

벤처기업 인증서 획득

2008 진주 바이오21센터 내 연구실 개소



다맥전수자 이경숙님

200년을 이어온 제다기술로 장인의 손에서
세상에서 둘도없는 명품차를 만듭니다.

햇차원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202 전화: 055-882-0000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카푸치노 같은 거품이 나는 가루차!

누가 분쇄기를 쓰지 않고
맷돌로 갈까요?



한국제다는 전남 영암, 장성, 해남에 10여만평의 다원을 가지고 우리 차를 직접 만듭니다.

57년 차를 만들어온 경험으로 차를 알고 차를 만듭니다.

우리 차의 정신- 한국제다가루차

한국제다

제품 상담: 062)222-2902